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Marriage Satisfaction in Marriage Migrant Wom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arental Efficacy.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전영화

결혼이주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Marriage Satisfaction in Marriage Migrant Wom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arental Efficacy.

지도교수 정민자

이 논문을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01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전영화

전영화의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허 은 정 인

심사위원 고 영 삼 인

심사위원 박 수 경 인

심사위원 이 승 미 인

심사위원 정 민 자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4년 01월

감사의 글

울산대학교 정민자 교수님과의 첫 만남은 2014년도 남구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연구와 헌신을 아끼시지 않는 교수님을 보면서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이룬 저의 경험을 살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해오던 저에게 교수님께서 아동 가족복지학과 박사과정 공부를 권하셨습니다.

한국어도 아직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잘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저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 누구보다 살아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고 교수님의 따뜻한 배려와 가르침, 한결같은 격려로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와 논문을 준비하면서 새삼 가족 상담의 중요성과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었고,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연구의 성과가 다문화가족 정책의 입안과 개선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넘어 연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정민자 교수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논문 심사를 맡아주신 허은정 교수님, 고영삼 교수님, 이승민 교수님, 박수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연구과정에서 같이 고민하며 힘들 때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논문방 식구 임은숙, 석미진, 김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힘이 되어 준 가족들과 늘 엄마를 챙겨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딸 연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해 주신 소중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꿈을 펼치며 다문화가정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여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용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활동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주변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01월 전영화 올림

국 문 요 약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전영화
지도교수 정민자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변화하는 세부적인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섯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일곱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등이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 패널 2기 2020년 조사에 응답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는 2,249명의 모집단에서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와 자녀가 있는 대상자를 케이스 선택하여 최종 1,781명을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전문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6과 AMOS 2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첫째,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의 중심경향 파악을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정규분포성 확인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다중공선성 문제 확인을 위해 VIF 값을 파악하였고,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Cronbach α 값을 도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개념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통해 직접 효과를 분

석하였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팬텀 변수를 설정하고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 반복 추출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결혼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248, p<.001$).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297, p<.001$). 셋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분석하였다($B=.127, p<.001$). 넷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beta=-.167, p<.001$)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해당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270, p<.001$). 여섯째,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344, p<.001$). 일곱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beta=-.167, p<.001$)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해당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에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게 되면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을 높이고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문제	7
3. 용어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1
1. 결혼이주여성	11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11
2)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배경	13
3)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15
4)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21
2. 문화적응 스트레스	23
1)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	23
2)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구성요소 및 특성	25
3)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27
3. 자아존중감	29
1) 자아존중감의 개념	29
2)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 및 특성	32
4. 부모효능감	35
1) 부모효능감의 개념	35
2) 부모효능감의 구성요소 및 특성	37
5. 결혼만족도	40
1) 결혼만족도의 개념	40
2) 결혼만족도의 구성요소 및 특성	43
3) 결혼만족도의 영향요인	43
6. 주요 변수 간의 관계	46
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46

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49
3)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53
4)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의 관계	55
5) 부모효능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59

III. 연구방법 64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64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65
1) 연구모형	65
2) 연구가설	67
3. 측정도구	68
4. 자료분석방법	73

IV. 연구결과 74

1. 인구사회학적 특성	74
2. 기술통계 분석	76
1) 기술통계	76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77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분석	77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분석	78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 차이분석	80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분석	82
3) 상관관계 분석	84
3. 측정모형 검증(확인적 요인분석)	85
4. 구조모형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90
1) 집중타당도	90
2) 판별타당도	90
5. 구조모형 검증	93
1)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검증	93
2) 구조모형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96

3)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및 총효과	97
4) 구조모형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99
5) 문화적응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통제변수	101
6. 연구가설검정 내용 및 결과	102
V. 결론	104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104
1) 연구결과 요약	104
2) 논의	108
2.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	112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118
참고문헌	119
부록	140
Abstract	145

표 목 차

<표 II-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적 정의	13
<표 II-2> 연도별 국제결혼 현황	16
<표 II-3> 다문화 혼인 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	17
<표 II-4>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적 정의	24
<표 II-5> 자아존중감의 개념적 정의	30
<표 II-6> 부모효능감의 개념적 정의	36
<표 II-7> 국내 학자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	41
<표 II-8> 해외 학자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의	42
<표 II-9>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48
<표 II-10>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	52
<표 II-11>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55
<표 II-1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59
<표 II-13> 부모효능감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62
<표 III-1> 질문지의 구성에 따른 변수명과 출처	68
<표 III-2> 문화적응 스트레스	69
<표 III-3> 자아존중감	70
<표 III-4> 부모효능감	71
<표 III-5> 결혼만족도	72
<표 IV-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5
<표 IV-2> 기술통계분석	76
<표 IV-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분석	78
<표 IV-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분석	79
<표 IV-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 차이분석	81
<표 IV-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분석	83
<표 IV-7> 상관관계 분석	84
<표 IV-8>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86
<표 IV-9> 측정모형의 자유모수 추정치	88
<표 IV-10> 다중상관자승치(SMC) 결과	89
<표 IV-11> 잠재변수의 개념신뢰도 및 평균분산 추출	92
<표 IV-12> 구조모형 적합도	93

<표 IV-13> 구조모형 적합도 판단 및 해석	94
<표 IV-14> 자유모수 추정치	95
<표 IV-15> 직접효과	95
<표 IV-16> 간접효과 및 총효과	99
<표 IV-17>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99
<표 IV-18> 문화적응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통제 변수	101
<표 IV-19> 가설검증 결과 요약	103

그림 목 차

〈그림 II-1〉 다문화 혼인 추이	18
〈그림 II-2〉 다문화 혼인 유형별 비중	18
〈그림 II-3〉 평균 초혼 연령	18
〈그림 II-4〉 부부 연령차 비중	18
〈그림 II-5〉 다문화 이혼 추이	19
〈그림 II-6〉 다문화 이혼 유형별 비중	19
〈그림 II-7〉 평균 이혼 연령	19
〈그림 II-8〉 결혼생활 지속기간	19
〈그림 II-9〉 다문화가족 출생 추이	20
〈그림 II-10〉 다문화 출생 유형별 비중	20
〈그림 II-11〉 모의 연령별 출생아 비중	20
〈그림 II-12〉 모의 평균 출산 연령	20
〈그림 III-1〉 연구모형	65
〈그림 III-2〉 연구모형 분석 절차의 체계도	66
〈그림 IV-1〉 확인적 요인모형	87
〈그림 IV-2〉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96
〈그림 IV-3〉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도식	97
〈그림 IV-4〉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도식	97
〈그림 IV-5〉 팬텀 변수 효과분해	100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은 모든 부부의 바람이자 가족생활의 지향점이다. 이러한 결혼생활은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Glenn & Weaver, 1981). 결혼생활에 있어 정서적 가치와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결혼의 선택과 관계 유지에 있어 사랑의 감정과 애정 기반의 관계, 배우자와의 친밀감, 정서적 욕구 충족은 결혼생활에 대한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를 높인다. 결혼만족도는 한 개인이 결혼하여 자신이 속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결혼만족도는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혼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표이며, 모든 인간은 결혼생활에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만족도는 Burr(1973)가 정의한 것처럼 한 사람이 결혼생활에서 가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 또는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그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정도이다.

최근 한국인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결혼 인식조사(한국리서치, 2023)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6.6점으로 나타났다. 조사 보고서에서 의하면 다시 태어나면 결혼은 하겠지만 ‘지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나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다는 결과보다 6% 포인트 높았다. 이는 한국인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한국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법무부(2022)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170,307명 중에서 결혼귀화자 151,313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는 처음 현황조사가 시행되었던 2001년(25,182명)보다 6배 가까이 증가된 것이다. 이처럼 국제결혼으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수가 상당하며, 이들은 이미 한국사회의 새로운 가족집단을 형성하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저개발국가의 여성과 나이 많은 한국 남성과의 초국적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두 개 이상 국가와 문화의 경계에 걸쳐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간다(김영순 외, 2016).

현재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여성가족부(2022)에서 발표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1)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가 39.9%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27.6%)에 비해 12.3%p 증가하였고, 결혼생활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는 성격 차이(56.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양육 문제가 26.7%, 경제문제가 24.7%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부부간에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있다는 대답은 52.4%로 2018년 통계조사 결과에 비해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차이의 경험 중 식습관(52.7%), 의사소통 방식(43.4%), 자녀 양육 방식(29.0%)은 오히려 조금씩 올랐으며, 가족 의례(24.1%), 가사 분담(14.2%) 순으로 여전히 문화 차이를 느낀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여성가족부, 2022).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건수는 2023년 통계청 혼인 및 이혼 통계조사에서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이혼은 4,000건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3).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건수가 2012년 7,900건에 비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율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결혼생활의 적응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심을 주목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면서 한국사회 적응, 문화적응, 한국어 습득뿐 아니라 아내, 엄마, 며느리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학습하고 수행하게 된다(김혜미, 권태연, 2021). 이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과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비중이 높아지고,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결혼만족도를 낮추고 있다.

현재까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두 남녀가 결혼하여 일반가정의 부부보다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증폭되어 결혼생활에서의 불안감이 심화된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서구의 국가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행복, 결혼 만족 등을 파악하고 사회문제로서의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같은 인종 간 또는 동일 문화권 안에서 결혼한 부부들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Fu, Tora, & Kendall, 2001).

또한 국제결혼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단일민족 중심의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양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초기 결혼 이주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개인·사회문화적 특성의 복합성에 적응해야하는 이유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서 가족 내 갈등과 가족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이중문화를 발전시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와 가족관계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통해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등의 변수들이 활용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이주여성이 기존에 자라온 모국을 떠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실감, 괴리감을 통해 경험한다(박미순, 황선영, 2012). 문화적응이론에 의하면 이주민이 정체성, 가치관, 행동양식 등에 변화를 경험할 때 상실감, 부담 등이 과중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조정희, 안준희, 2011; Berry, 1997).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우울, 불안, 소외감 등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Williams & Berry, 199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문화 수용성과 문화 간 감수성이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명은, 강택구, 2020), 더불어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과 배타적 수용성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문화 간 감수성이 높을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빠른 적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감소되고 결혼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방식이 통합이나 동화를 경험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복순, 차보현, 2006).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영향 관계 연구(이정숙, 2010; 최정혜, 2012)에 의하면 많은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안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문화충격, 차별,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 등을 동반하여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과 부부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이순자, 2014).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밝혀졌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최정혜, 2011; 함진옥, 조인주, 2012; Murphy, 1997).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

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부갈등이 높아지고, 결혼행복감이 감소되며, 부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지현, 이태영, 2010).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결혼 불만족이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밝혀졌다.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과정에서 모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다른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가족을 구성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통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했다(함진옥, 조인주, 2012; Murphy, 1997). 즉,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과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쳤다(박정숙 외, 2007).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작용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전반적인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적응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로 부모효능감이 보고된다. 부모효능감은 Bandura(1989)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에서 비롯되었으며,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기대이다. 부모효능감은 애정적 양육행동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능력과 전반적인 양육능력은 자신의 효능감에 영향을 받으며 부모효능감

이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Mondell & Tyler, 1981).

결혼이주여성이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자녀 양육방식의 어려움은 부모-자녀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가족기능을 저하시키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곽금주, 2008).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부모효능감을 일으키며, 이로 인한 자녀들의 언어 및 학업 문제, 학교 부적응과 또래 관계의 어려움,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김효선, 2020)과 같은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된다.

결혼이주여성은 낮은 환경인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이주 1년 또는 2, 3년 이내에 임신하게 되어(김혜련, 2009; 통계청, 2021), 출산 후 산후조리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김소희, 노윤구, 2018). 즉,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문화와 낮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로서 역할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새로운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화적응의 어려움이 낮은 부모효능감을 초래하고, 이는 답답함과 속상함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오혜정, 2015).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있어서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와 신념은 문화적 영향력을 받아 형성되는데, 결혼이주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유년기를 보낸 문화환경이 다르므로 부모로서 역할,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교육 방법, 자녀의 언어 사용, 그리고 문화적·인종적 정체성 등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 잠재적인 갈등 요소의 존재로 어려움을 겪는다(김수정, 2015). 결혼이주여성 가정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으며, 자녀가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떤 점에서 힘들어하는지는 알고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방법에 대한 부모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에서 결혼이주여성 가정 내 잠재적 갈등 요소들이 부모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적절한 양육행동을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국내 혼인율과 출생률 감소와 더불어 국제결혼 건수와 그 자녀의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 인구에서 결혼이주여성 가정에서의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22), 대한민국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과 가족,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결혼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결혼생활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로 인해 개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결혼이주여성들이 받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의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예측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을 높임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실천적 측면에서 연구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받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서로 다른 문화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에서의 받는 문화스트레스로 인해 낮아진 결혼만족도에 대해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결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적 개입 방안에 활용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결혼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6.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7.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 용어 정의

용어의 정의는 연구에서 선택된 개념을 실제상황에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과정에서는 측정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변수의 개념적 정의를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채서일,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결혼이민자를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2020). 즉,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어 한국에 체류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의해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의 형식을 통해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상태에 있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12)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의 용어에 기초하여, 한국남성과 혼인관계가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외국인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을 결혼이주여성으로 정의한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질적 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심리적·문화적 스트레스로서, 개인이 원래 자신의 문화와 새로운 사회의 현격한 차이에 직면하여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이며, 문화적 상황에서 변화를 직면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으로 적응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이다(Berry, 1997).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여 적응과정에서 야기되는 일종의 스트레스(McClurg, 2007)이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새로운 문화의 적응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차별의 측면을 함께 내포하게 되는 개념이다(Guinn & Vincent, 2002; Finch & Vega,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문화적 스트레스를 원래 자신의 문화 및 사회에서 경험

한 것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직면하고 경험할 때 받는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정의한다(송순택, 2014).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요인이며(Baumeister & Heatherton, 1996), 인간이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 필수적인 심리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인간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는 것에 대한 기본욕구이고, 이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원만한 대인관계가 유지되고 건전한 성격발달을 이루어 가는 기반이 되며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장성민, 박지민, 2020).

또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중하고 인정할 때 자신에 대한 중요성과 존엄성을 느끼게 된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정도이다(손유자 외, 2018).

4)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잘 해결하는 부모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이다(Luster & Kain, 1987; Johnston & Mash, 1989). 아울러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 자녀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역할 중 원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서재복, 2021).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부모의 역할 자녀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 부모효능감은 일반적으로 양육효능감과 혼용되며 이 외에도 부모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부모로서의 능력감 등으로 사용된다.

5)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개인이 결혼생활에서 기대했던 것, 또는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또는 현재의 결혼생활이 종결되었을 때 다른 대안과 비교해서 현재의 결혼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이롭고 만족스럽다고

고려되는 주관적 상태이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박미경, 2018).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결혼만족도란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의 극복을 돕는 자원으로써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 양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등 변수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위한 자료 수집은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국회 전자도서관, RISS, DBPIA, Google Scholar, DDOD 등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1. 결혼이주여성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현대사회는 다문화, 다민족의 글로벌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려면 정착 나라의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해야만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단일민족국가라는 순혈주의, 민족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강하게 내재 되어 있어 다문화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혼혈아, 혼혈가족 등으로 불리며 차별을 받아 왔다. 그 이후 20세기 말 세계화로 인한 외국인 유입의 증가와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란, 국적 또는 문화가 다른 배우자와 결혼 후 이민하여 혼인상태에서 모국이 아닌 배우자의 나라에 정착한 사람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주나 이민의 한 형태로, 이주 목적이 결혼을 통해 생겨나는 가족 관련 이유에 의한 것이다. 이민 자격 요건 및 이민 법률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결혼이주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민 국가마다 다른 이민 제도와 정책이 있었기에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의와 조건도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가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외국인 여성, 혹은 남성을 ‘결혼이주민’이라 말한다. 이중 결혼이주여성이란 한국인 남성과 외국

인 여성이 결혼으로 맺어진 경우, 외국인 여성 또는 혼인귀화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2023년 여성가족부의 가족 사업 안내에서는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은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 증대 등으로 인한 결혼 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이주를 목적으로 들어오려는 경우 요구조건의 까다로움이 많기에 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매우 높게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여성을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한다. 주로 농촌지역 미혼 총각들의 ‘농촌 총각 장가들이기’로 시작되었던 국제결혼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 재혼 남성들과 늦은 나이까지 장가가지 못하는 만혼의 노동자들의 배우자인 경우가 많았다(송태연, 2017).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전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외국인 주부, 결혼이민자,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여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이영설, 202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다문화가족은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와 제3조의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하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뜻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202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가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 외국인 여성으로 체류자격을 가진 여성을 결혼이주여성으로 정의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법률적인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남성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 국적인 여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용어는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을 했다는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으므로, 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오게 된 외국 여성을 지칭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용어로 사용되어야 한다(김미영, 2018).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이들의 자녀가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하며 가까운 이웃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김정화, 김남숙, 2019).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김상조, 2018; 주미연, 정명혜, 2018; 이해주, 오성배, 2019), 다문화 가정 여성(박선미 외, 2019; 장정인, 이지민,

2019), 해외 결혼여성,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나경희, 이선, 2016; 김선희, 2017; 김혜미, 권태연, 2021; 원종숙, 김성길, 2021)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으로 한국에 정착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로 통일되게 사용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개념적 정의를 정리하면 <표Ⅱ-1>과 같다.

<표Ⅱ-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적 정의

법제처	개념적 정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결혼이민자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4조의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결혼이주여성은 대한민국 남성과 혼인 관계가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여성으로 체류자격을 가진 여성을 결혼이주여성이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출처 :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

2)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배경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의 순수혈통을 강조했던 80년대 후반에 세계평화와 통일을 위해 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통일교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농촌총각과 일본 여성의 결혼을 주선하였다. 그러나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가족의 반대, 사회적으로 거부하는 분위기로 인해 결혼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외교 관계가 공식적으로 재개된 한국과 중국은 조선족 여성들을 친척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시켜 취업 활동을 시작하였고,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을 위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동남아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조원휘, 2019).

1990년대 말부터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결혼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직

업소개소로 위장하여 불법 예비신부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의 국제중매로 이루어졌다(최승호, 2019). 필리핀은 영어권이므로 2세의 영어교육에 유리하고, 모계사회에서 자란 필리핀 여성들은 농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필리핀 여성을 선호하게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조선족과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하던 국제결혼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되어 정부 차원의 국제결혼이 본격화되었다(박란이, 2016). 외국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정점을 이루던 2005년까지 한국 남성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외국인 여성은 중국(한국계) 여성이었으며, 다음으로 중국(중국계) 여성, 일본 여성 순으로 이루어졌다.

2006년부터는 한국인 여성과 비슷한 외모에 음식문화, 생활방식 비슷한 베트남 여성들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국제결혼에 대해 배타적이던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moi)’라는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후로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이후 많은 국가와 교류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TV 방송을 보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한류열풍이 불게 되면서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이 베트남 여성들에게 꿈이 되었다.

보건복지부(2005)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한국계)의 경우, 형제나 친척 등 혈연관계 및 인척 관계에 의해 국제결혼이 이루어졌으며, 일본과 필리핀 경우 한국 남성들이 결혼 비용을 종교단체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졌으며, 베트남은 대부분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사설 국제결혼 알선 업체들의 적극적 상술과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한국사회에 결혼이주여성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이진경, 2021).

그 증가의 주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편중된 성비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남성의 수가 급증하였다. 둘째, 결혼을 원치 않아 혼자 사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였다. 셋째, 농촌 생활을 거부하는 한국 여성들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저개발국 외국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넷째, 정보화·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었다(오주연, 2018).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 이주가 많아졌으며, 한국의 경제 상황보다 뒤쳐진 동남아시아 주변국 여성들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 탈출로 생각하였다(주미연, 2010).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이라는 브랜드와 한국 남성의 경제력을 통해 본국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새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얻고자 하였고, 국제결혼을 통해 모국에서의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불안했던 성장과정과 사회환경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3)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법무부(2022) 통계에 의하면 2021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245,912명으로 전체 인구의 4.37%이다. 2016년 12월에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1980년부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결혼이주여성이 급증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문제로 확장되었다(정희원, 2023).

전체 외국인 중 결혼이주여성은 169,588명으로 12%를 넘어섰고, 한국의 결혼이민자 대다수는 전체 결혼이민자의 80%가 여성이고, 가족 안에서의 출산·육아·양육 등 돌봄의 문제를 안고 있다(행정안전부, 2019). 특히 한국 남성과 아시아권에 있는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2000년대 초 7,000건에서 5년 뒤인 2005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가 3만 건을 넘었으며 2010년에는 전체 혼인의 1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결혼이민 사증 발급심사 강화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7년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K팝과 K드라마로 인한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와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국제결혼 총건수는 23,643건(4.2%) 중 한국인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결혼 건수는 17,687건(6.5%)을 차지하였다. 그 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가 2022에는 한국인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결혼 건수는 12,007건으로 33.6%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23).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이주해온 일본 여성들의 입국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한국계)과 필리핀의 결혼이주여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베트남, 중국, 태국, 미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양한 출신 국가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2023)이 발표한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혼인 건수는 <표 II-2>에서와 같이 베트남(3,319)이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2,282), 태국(1,932), 미국(600), 일본(599), 필리핀(509), 캄보디아(422) 순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아시아계가 차지하였다

연도별 국제결혼 현황을 정리하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연도별 국제결혼 현황

(단위 : 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제결혼 총건수	23,643	4.2%	15,341	-35.1%	13,102	-14.6%	16,666	27.2%
한국남자+ 외국여자	17,687	6.5%	11,100	-37.2%	8,985	-19.1%	12,007	33.6%
베트남	6,712	5.9%	3,136	-53.3%	1,319	-57.9%	3,319	151.6%
중국	3,649	-0.6%	2,524	-30.8%	2,426	-3.9%	2,282	-5.9%
태국	2,050	31.4%	1,735	-15.4%	1,589	-8.4%	1,932	21.6%
미국	597	5.3%	432	-27.8%	457	5.8%	600	31.3%
일본	903	-8.5%	758	-16.1%	723	-4.8%	599	-7.2%
필리핀	816	-4.2%	367	-55%	260	-29.2%	509	95.8%
캄보디아	432	-5.1%	275	-36.3%	137	-50.2%	422	208%
기타	2,528	16.1%	1,837	-25.9%	2,074	10.7%	2,344	13%
한국여자+ 외국남자	5,956	-2.2%	4,241	-28.8%	4,117	-2.9%	4,659	13.2%
미국	1,468	2%	1,101	-25%	1,278	15.9%	1,380	8.2%
중국	1,407	-5.5%	942	-33%	777	-17.5%	750	-3.5%
베트남	639	8.9%	501	-21.6%	440	-12.2%	586	33.2%
캐나다	363	-9.7%	257	-29.2%	223	-13.2%	310	39%
영국	190	3.3%	146	-23.2%	112	-23.3%	166	48.2%
호주	178	-5.8%	82	-53.9%	77	-6.1%	151	96.1%
기타	1,711	-4.9%	1,212	-29.2%	1,212	0%	1,316	8.6%

통계청(2023), 인구동태통계 연보

<표 II-3> 와 같이 통계청(2023)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혼인 건수는 17,428건으로 2021년(3,502건) 대비 25.1%로 증가하였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9.1%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1.9%p 증가하였다. 다문화 혼인의 유형은 외국인 아내가 66.8%로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남편 20.0%, 귀화자 13.2%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은 4.7%p 증가하였다[그림 II-1].

<표 II-3> 다문화 혼인 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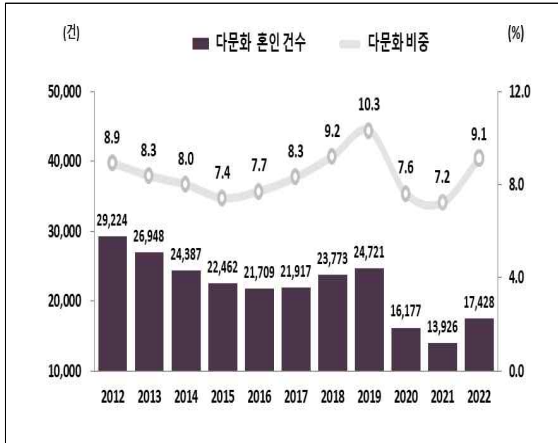
		전체			다문화 혼인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혼인 건수		213,502	192,507	191,177	16,177	13,926	17,428
(비중)		100.0	100.0	100.0	7.6	7.2	9.1
전년 대비	증감	-25,657	-20,995	-817	-8,544	-2,251	3,502
	증감률	-10.7	-9.8	-0.4	-34.6	-13.9	25.1

출처: 통계청(2023), 인구동태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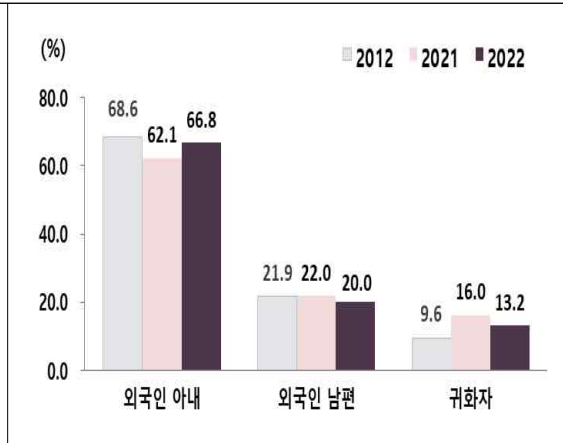
정책의 발전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된 2007년만 하더라도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12만 7천 명, 기타 귀화자까지 포함하면 총 14만 2천 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7만 3천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구 수 또한 통계청이 다문화 가구 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5년에는 29만 9천 가구였으나, 2020년에는 36만 8천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국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5년 1.53%에서 2020년 1.71%로 늘어났다. 다문화가정 가구원 수는 2015년 88만 8천 명에서 2018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 109만 3천 명에 추정된다(통계청, 2017; 통계청 2019; 통계청 2021;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22).

통계청(2023) 조사에 의하면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1%로, 2021년 대비 1.9%p 증가하였으며 외국인과의 혼인의 유형은 외국인 여성(66.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남성(20.0%), 결혼귀화자(13.2%)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은 4.7%p 증가되었으나, 귀화자 혼인은 2.8%p 감소하였다[그림 II-1], [그림 II-2].

다문화 혼인 추이 [그림 II-1]



다문화 혼인 유형별 비중 [그림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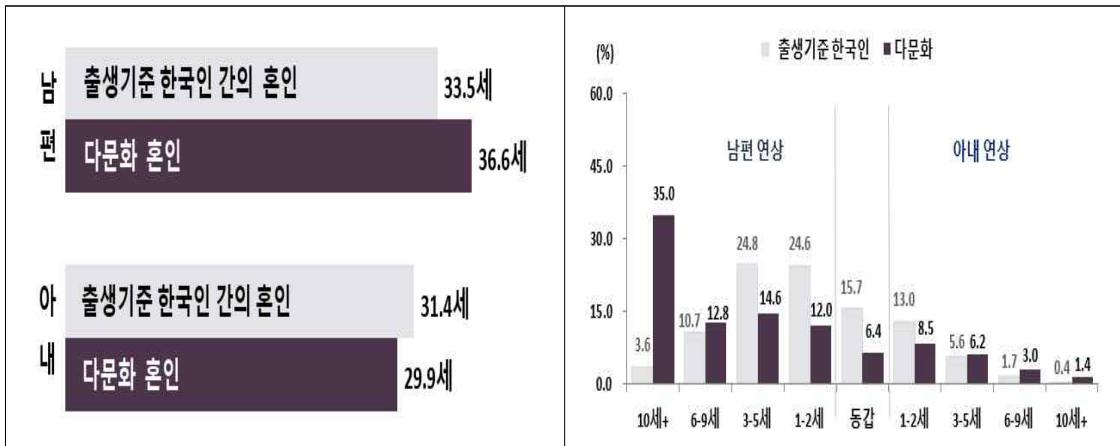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3), 인구동태통계

외국 여자와 혼인한 한국 남편의 초혼 연령은 평균 36.6세, 외국인 여성은 29.9세로 전년 대비 남성은 1.6세 증가하였지만, 여성은 0.5세 감소하였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연령차는 남편이 연상인 부부가 74.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남편이 연령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는 35.0%로 전년 대비 10.2%p 증가하였다[그림 II-3] [그림 II-4].

평균 초혼 연령, 2022년 [그림 II-3]

부부 연령차 비중, 2022년 [그림 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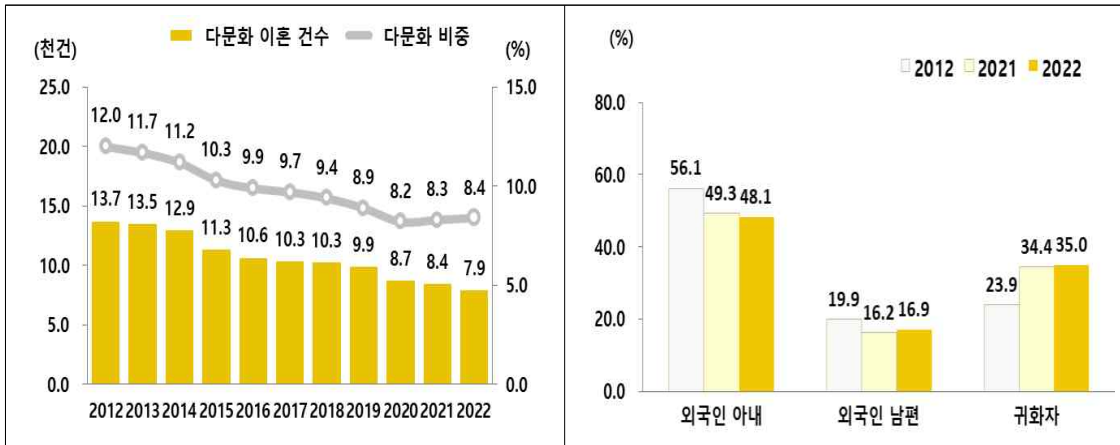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3),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 건수는 7,853건으로 전년(571건) 대비 6.8% 감소하였다[그림 II-5]. 전체 이혼 중 다문화와 이혼을 한 외국인 아내는 4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귀화자 35.0%, 외국인 남편 16.9% 순으로 전년 대비 외국인 남편, 귀화자와 이혼 비중은 각각 0.6%p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비중은

1.2%p 감소하였다[그림 II-6].

다문화 이혼 추이[그림 II-5]

다문화 이혼 유형별 비중[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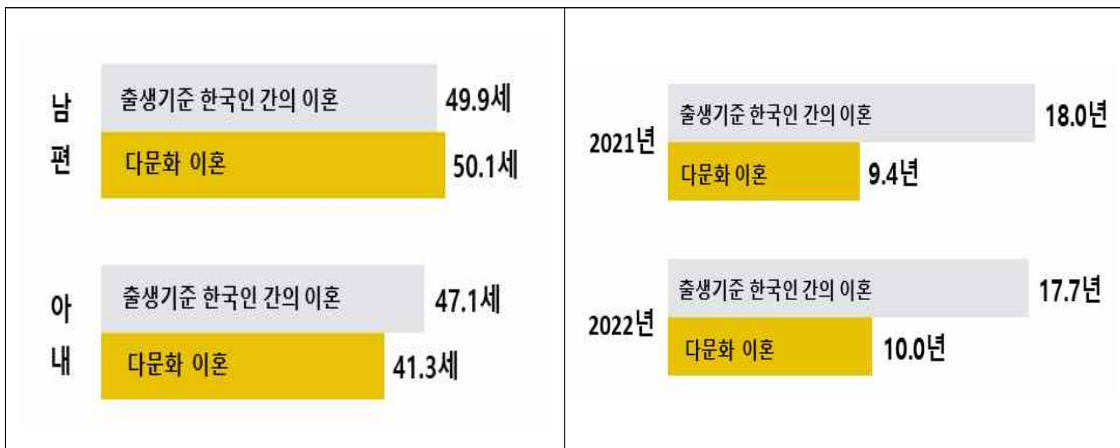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3),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이혼한 다문화가족 남편의 평균 이혼 연령은 50.1세이며 아내는 41.3세로 전년 대비 남편은 비슷하였으나 아내는 0.7세 증가하였다[그림 II-7]. 그리고 이혼을 한 다문화가족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10년으로서 전년 대비 0.6년 증가하였다 [그림 II-8].

평균 이혼 연령 [그림 II-7]

결혼생활 지속 기간 [그림 II-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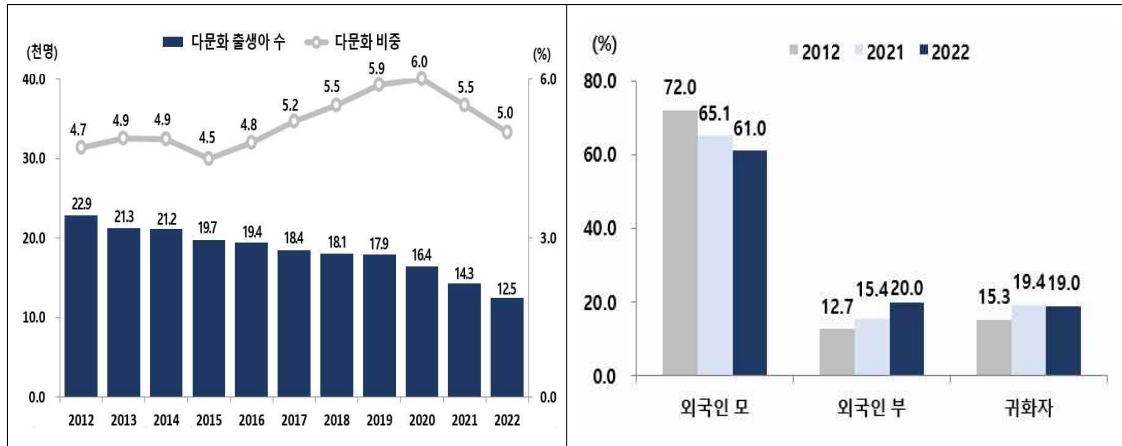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3),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녀 출생은 12,526명으로 전년 대비 12.5%(1,796명) 감소하였다[그림 II-9]. 다문화가족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가 61.0%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부 20.0%, 귀화자 19.0%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외국인

모(4.1%p), 귀화자(0.4%p) 감소하였으며 외국인 부는 4.6%p 증가하였다[그림 II-10].

다문화가족 출생 추이 [그림 II-9] 다문화 출생 유형별 비중 [그림 II-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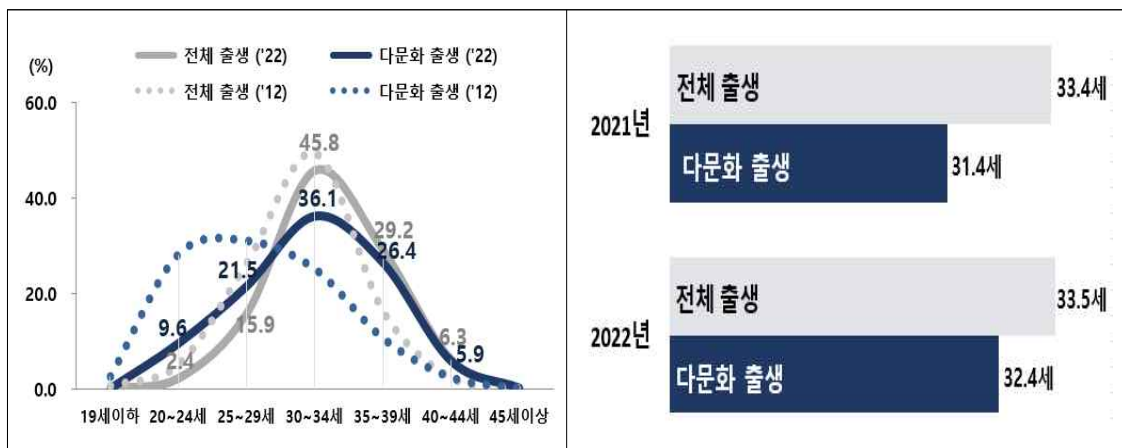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3),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다문화가정 부부의 혼인과 이혼은 감소하고 있으나 부부의 연령 차이는 더 많아 다문화가족 모의 출산 연령은 30대 초반이 36.1%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그림 II-11], 다음으로 30대 후반(26.4%), 20대 후반(21.5%)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출생에 있어서 모의 출산 평균연령은 32.4세로서 전년 대비 1.0세 증가하였다[그림 II-12].

모의 연령별 출생아 비중 [그림 II-11]

모의 평균 출산 연령 [그림 II-12]



출처: 통계청(2023),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특히 중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 및 통합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대두된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거주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적 관계는 점점 고립, 단절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와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수용성의 문제를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족 부부의 나이 차이 및 구성 배경은 이들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아무런 사회적인 지원과 대책이 없다면 다문화가족은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또 다른 소외 집단 또는 하층 계급화될 가능성이 높다(송태연, 2017).

4)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은 모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통해 해외로 이주하여 자신의 성공적인 삶과 모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이다. 또한 개인의 의지 또는 주위의 권유로 국제결혼을 통해 현실 도피하거나, 그 부모가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국제결혼을 시키고 있다(김성찬, 김유정, 2011).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문제가 개인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다양한 형태로 확산됨으로서 불평등한 경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국가 간 인구이동은 우선 자국보다는 선진국으로 이주하게 되고, 지역 간 인구이동은 농어촌보다는 도시를 선호하여 더 많이 이주하게 된다. 개인은 경제적·문화적으로 모두 안정적인 상대방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주는 자발적인 인구이동과 비자발적인 인구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

비자발적 이주는 주로 출신국의 전쟁이나 정치적 구속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반면, 자발적 이주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 다른 국가를 선택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는 자발적인 이주라고 볼 수 있다(정도희, 2012). 그러므로 자발적 이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미시적 측면에서 자신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환경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한국 남성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한국인 남성은 농촌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결혼 적령기를 넘겨 만혼인 경우 이를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이동은, 2016). 결혼이주여성은 해당 국가에서 비슷한 환경에 성장하여 농어촌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데 큰 부담감이 없고, 남성과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도 거부감이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미혼 남성들에게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은정, 2013).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은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은정, 서넉정, 2013; 이동은, 2016).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해가고 두 개 이상의 문화 경계를 걸쳐 삶을 영위해 나가며(김연순 외, 2019),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자 구성원으로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과 사회관계에서 복합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강진웅, 2016). 그리고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화적응문제, 결혼만족도에 관한 문제 등 어느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으로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나 부적응의 원인으로 부부 및 가족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양순미, 2006; 홍미기, 2009; 이현우, 2011), 남편의 상습적 폭행과 학대(박재규, 2007; 소라미, 2009; 정현미, 2010), 불평등 및 사회적 편견(이혜경, 2005; 구차순, 2007) 등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혼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그 이유는, 남편의 무능력 및 경제적 어려움, 결혼 전 약속과 다른 생활 때문에, 남편과의 성격 문제,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남편의 외도 및 성생활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박재규, 2007).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심각하고 다양하며 복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 한국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한계,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생기는 불안함, 국제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및 시선,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 서로 다른 문화차이, 자녀 양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한국 가족과 문화적 갈등에서 오는 차별과 외로움, 가족들의 학대 및 폭력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김미영, 2018).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다양한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편 혹은 남편 가족(시부모, 형제 또는 자매 등)으로부터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와 낮은 사회문화 속의 부적응으로 인한 문화적인 갈등 및 언어의 어려움으로 생기는 의사소통 문제, 경제적 빈곤 및 자녀 양육에서 오는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이혜경, 2005).

2. 문화적응 스트레스

1)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

인간사회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할 때,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기준도 문화이며, 인간들이 함께 생활하는 민족의 척도 기준도 문화이다(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란 자신의 삶에서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주변 환경 또는 접촉 수준들에서의 개인적인 변화과정이다. 또한 문화적응은 서로 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여 살아갈 때 각자 새로이 정립하게 되는 문화적 정체성, 심리적 적응의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채정민, 2002).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익숙한 문화적 가치에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갈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신현경, 2009) 우울·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정체성 혼란 등을 유발한다(Williams & Berry, 1991; Berry, 1997). 즉,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질 저하, 우울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동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모국의 가족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하였으나 국제결혼을 통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을 요구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모국의 가족문화와 타국의 문화 간 상당한 차이를 경험하며 갈등과 긴장을 겪을 수 있다(이진숙, 2010). 결혼이주여성들이 받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을 토대로 분석한 총 37편의 유관 논문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지지 요인들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신혜정 외, 2015). 또한 결혼만족도, 한국어 수준 및 부부 갈등 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진숙, 2010).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가족·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스트레스 원)을 말하며, 스트레스원에 의한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기도 한다(Hovey & Magana, 2002). 또한 우울, 초조함, 식욕상실 등 결혼이주여성들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문화피로’라고 하였다(Guthrie, 1975). 그리고 Smalley(1963)는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영역을 언어 영역으로 보고 문화적응 스

트레스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언어충격’을 언급하였다(홍미기, 2009). 한편, 이중 문화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가족·집단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현상을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하였다(Berry, 1997).

새로운 문화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행동양식들을 습득하는 과정은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 개인에게 심각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개인은 문화충격(cultureshock) 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박선태, 2012).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이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불안이나 우울, 소외감,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 상태, 신체 증상, 정체성, 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다(Williams & Berry, 1991).

이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결혼이주자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생활해온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상실감과 과도한 변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혼란과 갑작스럽게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새로운 문화환경 적응 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문화적 스트레스가 바로 주류가 되는 문화와 이를 받아들이는 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이다(Berry, 1997).

결혼이주여성들은 타문화 관습, 사회의 가치, 사회적 기준과 고유문화의 전통적인 관습, 가치, 사회적 기준의 영향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적응과정에서 심리적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박선태, 2012).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새로운 문화환경의 적응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는 일련의 스트레스와 차별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스트레스이다(McClurg, 2007).

문화적응 스트레스 개념적 정의를 정리하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문화적응 스트레스 개념적 정의

연구자	개념적 정의
Berry (1990)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할 때 개인, 가족 또는 집단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분노, 소외감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William & Berry (1991)	개인의 적응 능력을 넘어선 내, 외적인 요구로서 스트레스 개념에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확장 시킨 문화적 스트레스이다.
Hovey & Magana (2002)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감(스트레스 원)을 말하며, 이런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McClurg (2007)	새로운 문화 환경의 적응과정에서 개인·집단이 경험하는 차별의 측면을 내포한 일련의 스트레스이다.
신현경 (2009)	모국의 문화적 가치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박선태 (2012)	결혼이주여성들이 타문화 사회의 관습, 가치, 사회적 기준과 고유문화의 전통적인 관습, 가치, 사회적 관계에서 우울 및 갈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이다.
---------------	--

출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

2)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구성요소 및 특징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으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며,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적응전략 및 대처 방법도 달라진다.

Berry and Kim(1988)은 사회·문화 환경 적응의 분류를 신체, 생물학, 문화, 사회, 심리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첫째, 낯선 거주 지역에서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기후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 현상이다. 둘째, 낯선 음식문화 접촉으로 인해 경험하는 건강 상태의 생물학적 변화 현상이다. 셋째,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에서 새롭게 관계를 찾고 맺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넷째, 문화적 변화는 언어와 종교, 정치, 경제, 기술 등과 같은 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섯째, 심리적 변화는 신념, 가치, 태도, 그리고 정서적·심리적인 건강의 변화를 뜻한다.

Ward, Bochner and Furnham(2001)의 연구는 문화접촉을 개인 수준과 집단수준으로 분리하고, 개인적 수준은 통과(passing), 국수주의(chauvinism), 주변화(marginalization), 중재(mediating)로, 집단수준은 학살(genocide), 동화(assimilation), 격리(segregation), 통합(integration)으로 나누어 문화적응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Berry(1997)는 경험적인 연구를 이용하여 문화적응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문화적응모델을 모국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의 유지 여부,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두 개의 축으로 설명하였다. 이 두 개의 축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동화, 통합, 주변화, 분리의 네 가지 문화적응에 대한 전략이 발생한다. 첫째, 동화란 자신의 고유한 기존의 특수한 문화정체성 일부를 포기하고 새로운 문화양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통합이란 기존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정체성 사이의 조화를 의미한다. 셋째, 주변화란 자신의 문화정체성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고, 새로운 문화정체성에 무관심을 갖는 등, 이중문화 특징을 모두 지닌 문화를 말한다. 넷째, 분리란 자신이 갖고 있던 문화정체성만 유지하려 하며, 새로운 문화를 배척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Berry and Sam, 1997).

한 사회에서 외국인의 정착을 받아들이는 정책의 유형을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모형’의 세 범주로 구분한 연구도 있다(설동훈, 2006; Castles and Miller, 2003).

첫째, 차별배제모형은 국가가 특정 경제영역에만 외국인(이민자)을 받아들이고, 복지 및 정치, 문화, 사회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치 않는 외국인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Castles & Miller, 2003). 대부분 단일민족을 강조해 온 한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 세계화로의 흐름 변화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주 이동,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로 이 모델은 제한받아 약화되었다.

둘째, 동화 모델은 이민자(외국인)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며, 1960년대까지 미국의 ‘용광로(Melting Pot) 정책’으로, 프랑스도 이러한 모델을 채택한다. 이는 이주민을 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정책이며, 정착국의 언어를 습득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이주민 자녀들도 정규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쉽고 빠른 동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다문화 모델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키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적 목표를 이들이 두 문화가 상호 공존하는 것에 둔다. 이것을 ‘샐러드 볼’(Salad Bowl) 모델이라 한다. 이것을 비유는 샐러드는 서로 다른 맛과 모양을 가진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한데 어우러져 공통의 드레싱으로 동등하고 공평하게 서로 뒤섞이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인종적 모자이크’ 혹은 ‘무지개 연합’이라고도 한다. 동화의 모델이 적용되면 사회에서는 주류사회의 모델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다문화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장하였다(Berry, 1990).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힘과 삶의 양식은 소멸 및 확장되기도 한다. 이때 만일 정착국의 주류 문화가 타문화에 대하여 폐쇄적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때때로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 회의를 느낄 것이고 자아존중감도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언어의 어려움, 소외감, 차별, 사회적·경제적 자원의 부족이다(Hovey & Magana, 2002).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태어나서 성장해온 모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배경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주류사회가 단일문화적인 성향으로 타 문화에 대해 지배적 성향을 가진다면, 이는 이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박선태, 2012).

또한 가족이나 친밀했던 인간관계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사회적 지지의 상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주요한 측면 중 하나이며, 이러한 사회적지지의 상실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평가해 주는 것과 연관된 정보의 획득의 어려워짐을 의미한다(김인아, 2015). 배우자가 아닌 친구와 기타 의미 있는 타자의 지지도 중요한 사회적 자원인데 같은 나라 출신인 사람과의 관계는 일시 체류자나 이민자 모두에게 중요한 지지 원천으로 본국 친구가 심리적 안정이나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et al., 1987; Ying & Liese, 199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역기능적 측면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박선태, 2012; Hovey & Magana, 2002). 이와 유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감과 주변화의 느낌을 경험하게 하고 정체성의 혼란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Berry, 1997). 이처럼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회 질서와 문화적 환경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박선태, 2012).

또한 문화적응은 문화적·심리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문화적 차원은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및 정치적 등 다양한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며, 심리적 차원은 개인의 행동, 태도, 가치, 정체감 등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다(Berry, 2002). 하지만 모든 이민자 난민들이 이러한 문화적응의 변화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과 문화의 특징에 따라 개인과 집단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Berry, 2002).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일상적 생활에서 판단이나 결정, 평가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신념, 일반적인 경험으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추측은 불확실과 불안을 초래하며 환경 통제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 결국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크기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김인아, 2015).

3.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자신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태도이며 자기 스스로를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다(Rosenberg, 1965)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활력 있고 진취적인 삶을 살게 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가치가 없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열등감에 빠져서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소극적인 생활과 직무태도를 갖게 된다(배나래, 박종선, 2009; Battle, 1978). 자아존중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평가적 의미, 감정적 의미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구분되어 정의되어 왔다 (전현수, 2010).

먼저, 자아존중감에 대한 평가적 의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손유자(2017)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가치를 기술하는 개념으로 평가와 판단 모두 포함하며 자신에 대한 존경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Maddux(1991)는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자기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Gardner & Pierce(1998)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을 감정적 의미인 개인의 능력과 성공, 의미, 가치와 관련하여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말하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거나 불인정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Baumeister(2005)는 자기에 대한 정서를 유발·지속시키는 자아의 개념과 연관된 가치로 보았다. 즉, 개인이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도로서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선호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곽새롬(2016)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을 존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고 스스로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을 평가적, 감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선행연구로, Coopersmith(1967)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평가이자,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 또는 불신의 태도를 나타내고, 자신의 능력, 성공, 및 가치 등에 대해 믿고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최정희(2010)는 자신의 유능함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평가하는 태도이며,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개념을 정의해보면, 자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이며,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내린 평가를 의미한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요인이며(Baumeister & Heatherton, 1996), 인간이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데에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 필수적인 심리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란 인간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는 것에 대한 기본욕구이고, 이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원만한 대인관계가 유지되고 건전한 성격 발달을 이루어 가는 기반이 되며,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장성민, 박지민, 2020). William James(1890)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자신에 대한 가치’라고 정의하여 처음 사용하였으며 이때부터 인간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Murk, 2013). Rosenberg(1965)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을 자기수용, 자기 존중, 자신에 대한 만족의 지표라고 주장하면서 우월감, 완벽함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Freud, 1957; Rosenberg, 1979; Harter, 2020), 인간의 적응, 정신건강, 태도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이자영 외, 2009; 천영희, 2019).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많은 방식으로 개념화되어 명확하고 합의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개인 스스로 자아개념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서 자아존중감 수준이 발생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Shavelson et al., 1976; Greenwald et al., 2002). 즉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는 개념은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개념적 정의를 평가적, 감정적, 그리고 평가적·감정적 의미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II-5>와 같다.

<표 II-5> 자아존중감의 개념적 정의

분 류	연구자	개념적 정의
평가적 의미	Maddux (1991)	긍정적 자기평가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
	Branden (1998)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존경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Newman (2011)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의 결과이다.
	Harter, (2020)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전반적인 평가이다.
감정적 의미	곽세롬 (2016)	스스로를 존경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감정이다.
	Gardner & Pierce (1998)	개인의 능력, 성공, 의미, 가치와 관련하여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Baumeister & Heatherton, (1996)	자아존중감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평가적, 감정적 의미	Rosenberg (1965)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로서 스스로를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Coopersmith (1981)	개인이 능력이 있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 즉 한 개인이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사적인 판단이다.
	최정희 (2010)	자신의 유능함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평가를 하는 태도이다.
	Harter, (2020)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송미나 (2017)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정도이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 내리는 평가적 의미이다.

출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다고 보는 가치판단인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므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의 의미는 중요하다. 스스로에 대한 가치판단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을 믿고 존중하면서 자기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여기는 경우 자신에 대해 비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Baumeister et al., 2003). 이에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이 높고 대인관계에서 고립될 수 있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정서와 행동, 인지과정과 관계를 보이므로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문제나 정서적 장애를 일부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자영, 외 2009).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연구 분야 및 실천 현장에서 중요한 내적 심리 보호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그 증진 방법에 대하여 폭넓은 관심을 받아 온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Baumeister et al., 2003; Trzesniewski et al., 2004). 한국사회에서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 적응을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아존중감이 활용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적극적 자아개념으로 정의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 및 특징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의 삶은 자아존중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생활환경이다. 자아존중감은 이주민에게 문화적응과 개인의 전반적인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Virupaksha, Kumar, & Nirmala, 2014). Dvorakova(2018)는 지배적인 사회 구성원보다 소수자의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어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주민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Bregant(2016)는 이주민의 이주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경험이라고 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경우 문화적·사회적 지위에서 배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더해 삼중적 차별을 받을 수 있어 자아존중감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이주민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내적 심리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수준 등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Nesdale et al., 1997; Nesdale & Mak, 2000; Hovey & Magana, 2002). 하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Pyszczynki et al., 2004),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밝혀졌다(Panchanadeswaran & Dawson, 2011).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도 자아존중감은 내적 심리 요인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지현, 김보미(2017)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아존중감이 직업보다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여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밝혔다. 김진희, 박서진과 이진아(2018)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자아존중감이 증진되었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민 한국인 대부분과,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자아존중감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밝힌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Park & Bernstein, 2008; Lönnqvist, Leikas, Mähönen, & Jasinskaja-Lahti, 2015). 그런데 호주 이민자 집단 구성원의 특성에서 민족적 자아존중감이나 정체성보다도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건강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Nesdale & Mak, 2003)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이주를 동시에 선택해서 오는 경우 짧은 시간 내 문화적응과 더불어 새로운 역할과 삶의 방식 변화를 경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진경, 2021).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문화의 이해 부족, 체

류나 국적의 문제, 언어로 인한 소통의 문제, 양육 문제, 취업 문제 등 다양한 고충을 경험하고 있으며(Kim & Yoo, 2019),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종종 좌절하기도 하고 상당한 긴장과 좌절, 불안, 우울을 지니기도 한다(고기숙, 정미경, 2012; 김창기, 이진성, 2013).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과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김순옥 외, 2013; Virupaksha et al., 2014),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명숙, 2010). 또한 인지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부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결혼생활은 결혼만족도를 낮추고 있다(장영신, 2018).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경우 가족건강성, 결혼만족도, 부모효능감, 구직효능감, 적응유연성, 생활만족도, 삶의 질 등 삶의 긍정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이지현 외, 2013; 김창기, 이진성, 2013; 함필주, 강기정, 2015; 문무현, 한진환, 2018).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본인의 정신건강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연구는 새로운 사회환경에서의 적응의 문제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다룬 연구가 다수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을 가능성이 크며(박용순 외, 2012),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차별과 편견(류한수, 2016; 오희순, 2015), 적대감으로 인한 소외감(주소희, 이경은, 2014; 박범철, 2015), 좌절과 불안, 우울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작용하였다(고기숙, 정미경, 2012; 김창기, 이진성, 2013).

반면, 역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문화적응의 문제를 결정하는 선행요인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요인으로 밝혀지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 문화적응, 사회적지지(강만철, 이숙자, 2017). 사회적응(권복순, 2010; 송경신, 송기범, 2010; 박민서, 2011)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도 밝혀지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이주에 따른 문화적응의 부정적 결과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주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권복순, 2010; 박민서, 2011; 김창기, 2012; 박용순 외, 2012; 신혜정 외, 2015; 봉초운 외, 2018).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사회 적응(김지원, 2016), 문화적응, 심리적 안녕감,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천영희, 2019),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은 물론 결혼생활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주민의 문화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다(정혜정, 2018)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증대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작용으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이지현 외, 2013).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역할 과중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저하되는 심리적, 정신적 부적응에 대한 예방으로 자아기능 강화인 자아존중감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이진경, 2022).

4. 부모효능감

1) 부모효능감의 개념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모 본인의 신념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2000). 보통 양육효능감이라고도 하며, 그 외에 부모 역할 자기효능감, 부모로서의 유능감 등으로도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부모효능감이 강한 부모는 긍정적인 육아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eman & Karraker, 2000).

부모효능감의 이론적 근거는 자기효능감에서 비롯되며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속력이 강해지고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자기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 문화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저하되거나 회피적 태도로 나타난다(Bandura, 1977).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적용한 개념이 부모효능감이다.

부모효능감은 자신이 자녀의 양육을 잘하고 있으며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 역할 능력에 대한 자각이며(Johnston & Mash, 1989),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는 이해력을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자기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이귀숙, 김현숙, 2016).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모효능감은 올바른 부모로서 역할과 방법을 스스로 알고 있으며 자녀의 고민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자각하는 신념이나 기대감으로 정의한다.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부모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자녀의 발달 결과 부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Luster & Kain, 1987; Johnston & Mash, 1989). 아울러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역할 중 원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서재복, 2021). 즉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부모의 역할, 자녀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의 자녀 양육방식과 이주국 사회의 양육방식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Koniak-Griffin, Ligsdon, Hines-Martin, & Tuner, 2006), 이는 문화 양립 불가능이 주는 스트레스로 이어졌다(Hovey & Marana, 2002). 이러한 스트레스는 결혼생활 불만족, 우울로 이어짐으로써(하주영,

김운지, 2013)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유수정 외, 2021), 이는 부모 역할에 불만족을 느낀 자녀의 스트레스와 우울로도 이어짐을 알 수 있다(전경숙, 2017)

특히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홀로 이주하여 배우자 및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 양육방식을 새롭게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모국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배우자와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부족하여 부모효능감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이아민, 이채원, 2017). 실제로 상당수의 국내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양육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한국 생활의 어려움 중 ‘자녀 양육 및 교육’은 2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부모 역할에서의 효능감은 실제 부모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각하게 한다(Izzo & Rodriguez, 2000). 새로운 문화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부모효능감은 자녀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부모효능감의 개념적 정의를 정리하면 <표 II-6>과 같다.

<표 II-6> 부모효능감의 개념적 정의

학 자	개념적 정의
Bandura (1986)	부모효능감을 인간 행위의 선행요인 가운데 어떠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의 기대이다.
Luster & Kain (1987)	자녀 발달적 결과에 대하여 부모 자신 스스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이다.
Johnston & Mash (1989)	부모로서 자녀를 잘 훈육하고 양육하며 자녀가 문제의 상황이 생겨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Teti, Gelfand (1991)	부모가 자녀를 양육에 있어 효과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이다.
Dorsey, Klein & Forehand (1999)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Izzo & Rodriguez (2000)	부모효능감은 부모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에게 존재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각이다.
Coleman and Karraker (2000)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행동과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
Montigny (2005)	자녀양육과 관련된 일련의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양육 능력에 대해 부모가 갖는 믿음이고 판단이다.

Leerkes와 Burney (2007)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및 자신감이다.
Bandura et al., (2011)	부모효능감이란 부모로서의 다중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적 요소이다.
우희정, 이숙 (1994)	훌륭한 부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변화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김선애, 한유진 (2009)	주어진 부모역할을 잘 감당해 내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능력판단을 의미한다.

출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

2) 부모효능감의 구성요소 및 특징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주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부모효능감은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네 가지 주요 자원인 숙달 경험, 간접경험, 언어적 설득, 심리적·정서적 상태로 설명될 수 있다(Bandura, 1989; De Montigny et al., 2005).

부모의 높은 효능감은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성장 및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효능감과 함께 부모 자신의 삶과 결혼생활 만족도에 도 영향을 미친다(Bandura et al, 2011). 많은 연구에서 부모효능감은 직접, 간접으로 부모로서의 적응과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 Prinz, 2005).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및 우울증 수준이 낮아지고 나아가 부모의 역할 만족도가 높았으며, 부모효능감은 부모 행동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과 사회적 적응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모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의심과 좌절을 느끼며 이것이 자녀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효능감이 높은 가족에서 자란 청소년 자녀들은 유능감이 높고 또래와 가정에서의 상호작용 및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ca et al., 2011).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 경험과 같은 이전의 숙달 경험은 그와 관련된 부모효능감의 형성에 가장 주요한 근원이 되며(Bandura, 1989), 자기효능감을 양육의 측면에 적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Coleman et al., 1998).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점에 있어서 자녀의 발달적 성과에 대해 부모 자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이며(Luster et al., 1987),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 자신에게 갖는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Gross et al., 1988; Teti et al., 1991). 만일 부모가 자신 행동이 자녀 양육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행동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Bandura, 1977).

따라서 부모효능감은 부모역할 수행에서 자녀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로서의 능력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모 역할 관련 연구에 있어 부모 역할의 인지적 측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한경님, 2012). 실제로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서 자녀 양육 행동을 예측하고 자녀의 성장·발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부모효능감이 부모로서의 역할수행뿐만 아니라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Dorsey et al., 1999).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와의 갈등 및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대처자원을 잘 활용하여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고(Johnston et al., 1989), 부모가 갖는 다양한 내면적 요인 중 심리적 변인인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부모 역할 효능감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맥락에 놓인 연구 중에서 부모효능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변인(Perry et al., 1986)으로 부모효능감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란 자녀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부모효능감은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모 역할수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발달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 스스로가 부모역할에서 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녀가 능력과 자원이 많은 훌륭한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 발생 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문제발생상황에 따라 일관되고 융통성이 있게 행동할 수 있다(Mondell & Tyler, 1981).

부모의 높은 효능감은 부모 역할수행에서 바람직한 양육 행동과 부모-자녀 간에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원만한 의사소통을 유도할 수 있지만, 부모 역할에서 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부적절한 양육 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

녀의 긍정적인 사고를 저해할 수도 있다(Coleman & Karraker, 1998).

또한 적절한 부모 역할은 자녀의 성장, 발달과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성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정체감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 즉 부모효능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생각은 또래 및 사회관계에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양육과정에서 스스로 부모 역할에 위축되어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취업을 위해 타인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므로 출산을 하여도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언어의 장벽과 경제적 어려움, 교육환경의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부모 역할에 과중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이성순, 2008).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부모 역할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제 능력의 차이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더 의미 있게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수행에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는 아무리 낯설고 고독한 한국사회에서 유일한 혈연관계이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이다(박소은, 이채원, 2012).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 차이 언어적 제약 등으로 인해 한국인 어머니와 성격이 다른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 역할보다는 어머니 역할의 비중이 높고 어머니는 늘 주요 양육자로 여겨지므로 다문화 어머니가 느끼는 불안감 소외감 우울감 등의 감정이 자녀 양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이라는 큰 삶의 변화와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어머니는 심리적 정신적·불안정으로 자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결혼만족도

1) 결혼만족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만족’은 ‘욕구’ 또는 ‘기대’가 선행되어야 정의될 수 있는 상대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이다. 결혼만족은 결혼생활에 대한 ‘욕구’ 또는 ‘기대’가 충족되는 정도이다.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는 갈등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감정 또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기타 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Vangelisti, & Daly, 1997).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를 포함한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로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 부부라는 이차적 관계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선호이다(조운주 외, 2012).

결혼만족도란 부부 각자의 결혼생활 대한 기대 및 욕구가 실제로 충족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느끼게 되는 만족과 행복의 주관적 감정이다. 즉, 만족을 만족 대 불만족의 양립적인 개념으로만 분류하지 않고, 행복 대 불행, 즐거움 대 즐겁지 않음, 충족 대 불만과 같은 감정을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으로 이르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간주한다(안현숙, 2011).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이라는 개념은 가족학·심리학·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 온 주제이며, 결혼만족도는 결혼 행복도, 결혼적응도, 결혼의 질, 결혼성공도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학자별로 결혼만족도 개념의 차이를 보이며,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국내외 학자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정리하면 <표 II-7>, <표 II-8>과 같다.

<표 II-7> 국내 학자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

학 자 명	개념적 정의
박은옥(2001)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현숙(2001)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 및 친족 그리고 상황적 조건 등 결혼생활의 모든 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 기쁨, 즐거움, 만족 등의 주관적 감정으로 정의된다.
조혜선(2003)	결혼한 남녀의 결혼만족도는 가정의 안정과 해체 혹은 결혼생활 전반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고정애(2004)	결혼생활 전반에서 부부의 긍정적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 또는 태도이다. 따라서 부부의 긍정적 태도와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가늠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전병희(2008)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태도,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에 중심을 두고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이다.
이유경(2011)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결혼에 대한 인지와 만족 정도이다.
조윤주,한준아 김기현(2016)	부부관계를 포함한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로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 부부라는 이차적 관계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선호도이다.
김병화(2016)	부부의 개인적 욕구가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되는 정도를 말하며 부부 상호간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보이는 실제 수행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홍숙(2016)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면과 객관적인 면이 있다. 주관적인 면은 조건과 환경을 놓고도 자신의 내면적 태도로 인해 만족과 불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신순옥(2016)	부부간의 의사소통, 공유시간, 경제적 만족, 성적만족,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만족 등 결혼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이나 만족 또는 결혼의 질과 관련된 요인이다.

출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

<표 II-8> 해외 학자들이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의

학 자 명	결혼만족도 정의
L. Hawkins & K. Johnson (1969)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도의 주관적 감정이며 태도이다.
Rollins & Fledm (1970)	결혼생활에서 추구하는 자신의 기대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여 나타내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이다.
Rice (1997)	결혼생활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나 요구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감정 또는 태도이다.
J. Hawkins (1997)	현재 결혼생활의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경험하는 행복, 만족, 즐거움이라는 주관적 감정이다.
Cutrona (1996)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시간적 차원에 따라 경험되어지는 선호의 정도이다.
Suhr (1997)	부부 각자의 기대와 욕구 그리고 결혼생활에서의 자신의 바람 등을 충족시키는 정도이다.
Spanier (1980)	개인이 결혼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이다.
Roach (1981)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시간적 차원에 따라 인식하는 것으로 좋고 싫음과 같은 선호도의 태도이다.
Glenn (1990)	개인의 경험한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에 현상에 대한 주관적 감정으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 기쁨과 주관적 감정이다.
Brezsnyak & Whisman (2004)	개인의 욕구와 기대, 결혼생활에서의 바람 등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결혼만족도라고 한다.

출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결혼을 목적으로 타 국가로 이민을 온 경우이므로 그들의 결혼생활 만족의 상당 부분은 배우자와 자녀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의 집합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 개념을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의 집합체로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도로 개인의 욕구와 기대, 결혼생활에서의 바람 등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정의한다.

2) 결혼만족도의 구성요소 및 특성

Roach, Frazier, & Bowden(1981)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은 결혼만족도를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요인, 부부의 합리적 태도, 부부의 심리·사회적 동질감, 갈등요인, 부부관계의 불만요인, 결혼생활에 대한인지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은 자신이 결혼 전에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자신의 삶이 희망적이며 성공적이라고 믿는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부부의 합리적 태도는 서로가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기회를 주는 정도, 서로가 동등하게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정도, 서로의 자유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인정하여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부부의 심리·사회적 동질감은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관심과 사랑, 즐거운 대화, 유사한 취미활동 그리고 자신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결혼생활에서 갈등은 현재 결혼생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걱정과 근심이 많으며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짜증 나고 화도 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부부관계의 불만 요인으로는 부부가 서로 취미가 다르고 성관계에 불만이 있고 배우자 대한 신뢰도 없어 결혼생활 자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는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결혼생활이 만족인지 불행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혼만족도를 성적 만족, 친밀성, 상호소통으로 유형화한 연구(이경성, 한덕용, 2003)에서 성적 만족은 애정표현, 성적 관심, 성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의미하며, 친밀성은 부부간에 친밀감을 느끼고 행복을 소망하며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를 의미하며, 상호소통은 부부 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마음이 전달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처럼 결혼만족도는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배우자와의 상호 관계적임을 알 수 있다.

3) 결혼만족도의 영향요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에서 살펴본 결과 다양하

게 상존함을 알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이주여성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 태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독특성과 고유함이 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와 자신의 연령, 학력, 국적, 직업 유무, 종교 유무, 결혼생활 기간, 체류 기간, 가족 월수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이순자, 2013).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연령, 교육, 종교, 경제력 등과 같은 특성 사회적 배경이 부부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때 결혼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Chadwick, Albrecht & Kunz, 1976). 이러한 유사성이 부부 사이 기대와 가치, 행동양식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줄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창운(2017)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종교에서 결혼한 국제결혼가정의 부부 결혼만족도 평균 점수는 191.26점이고, 일반인 가정의 부부 결혼만족도 평균 점수는 183.35점으로 일반인 결혼 가정의 부부 결혼만족도 평균 점수보다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고 밝혔다.

Houseknecht & Macke(1981)도 동질성 종교와 교육은 결혼만족도에 중요하다고 보고하면서, 교육 수준이 유사한 동질 혼을 한 여성이 자신과 남편 사이의 일치도가 높다고 밝혔다.

연령이 높은 여성층이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7살 이상 배우자와 연령 차이가 나는 순서대로, 대가족 구성을 이룰수록 높게 나타났고, 남편이 고졸 이상의 학력과 결혼이주여성의 고졸 이하의 학력일 때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송미영, 박경희, 2008).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20대가 높고, 30대가 낮게 나타났다(이순자, 2013).

결혼기간에 따르면 결혼기간이 1년 이상 혹은 2년 미만에는 높다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로 낮아지고 있었다(이영분, 이유경, 2009). 11~15년 미만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 시기는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할 때임을 알 수 있다(이순자, 2013).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층이 20대에 초혼일 경우와, 남편의 경우 300만 원 이상 월 평균소득일 때, 전업주부인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수, 2007).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적응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잘될 때,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양순미 외, 2006).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형은 남편 우위 형이 아내 우위 형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양점도, 김춘택, 2006),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계층은 한국문화 정체성이 높을 때이고, 연평균 소득이 높고, 학력은 낮고, 모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낮을 때의 순으로 나타났다(권복순, 차보현, 2006).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정확하고,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적고, 부동반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일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은경, 2008). 또한 결혼만족도에 국적 취득 여부는 영향이 없었으며(임인숙 외, 2010), 자녀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박정숙 외, 2007; 송미영, 박경희, 2008; 이순자, 2013). 이처럼 결혼만족도 영향요인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삶의 만족과 배우자와의 동질감이 심리적·사회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와 자신의 연령, 학력, 국적, 직업 유무, 종교 유무, 결혼생활 기간, 체류 기간, 가족 월수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이창운, 2017).

선행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기간, 나이, 소득수준, 학력수준, 언어 구사능력, 건강상태, 자녀 수 등이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있었다(양순미, 2006; 박정숙 외, 2007; 송미영, 박경희, 2008; 이유경, 2011). 이외에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인구학적, 성역할 태도, 수입 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변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6. 변수 간의 관계

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후 새로운 문화환경, 새로운 가족, 이주 사회 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질적 문화의 다양한 차이로 야기되는 심리·문화적 스트레스를 의미하는데(원영희, 2005), 이는 부부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부갈등을 높이고, 결혼 행복감을 감소시키며(송지현, 이태영, 2010),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최정혜, 2011; 함진옥, 조인주, 2012).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가정의 안정에 관한 논의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변인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국의 문화와 이주국 문화 사이의 충돌과 적응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심리, 문화적 스트레스이다. 개인이 문화적응과정에서 자신이 자라고 교육받았던 문화와 새롭게 접하는 문화적 차이에 직면하여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갈등과 긴장을 의미한다(이민자, 2019).

서로 다른 문화가 수용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주거환경이나 주변 환경, 음식, 경제 상태, 언어, 사회제도,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서선숙, 백진아, 2017).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언어와 음식, 자녀 양육, 가족관계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결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 대한 만족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이혜경, 전혜인, 2013).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새로운 문화환경, 관습, 새로운 언어 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충격, 차별,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 등으로 좌절과 불안을 경험하며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정숙, 2010). 한국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가끔 느끼며, 자신은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나고, 자신이 한국문화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하며 나아가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정혜, 2012). 또한 임파워먼트가 강화될수록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감소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문화충격, 사회적 편견, 적대감)가 낮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자,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차이가 부부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의 요인이다(김연수, 2007). 문화는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구조로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부부갈등을 일으키고, 문화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오남, 2005).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국의 문화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나타난다. 같은 문화권에서 생활한 사람이 결혼하여도 가정의 고유한 가풍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물며 서로 다른 문화 환경에서 이미 내면화된 고유한 문화로 인해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부갈등은 높아지고, 결혼행복감이 감소되며,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김연수, 2007).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수준이 높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남인숙, 안숙희, 2011; 이해경, 전해인, 2013).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는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구조로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부부갈등을 일으키고(김오남, 2006), 문화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남인숙, 2010).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의 어려움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고 가족과 친구들 떨어져 홀로 새로운 문화환경에서 언어, 음식에서부터 생활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과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주한 문화의 성격, 이주한 집단과 개인의 특징,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다(Berry et al., 1988). 이는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다문화적인 성향이 있는 국가와 단일문화 기준을 따르는 것을 강요하는 동화적인 성향을 가진 국가에서 이주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erry & Kim, 1988).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 태도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동화하는데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자녀양육 문제와 가족불화의 원인이 되어 결국에는 결혼생활과 가정해체의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권명희, 201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생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결혼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이혜경, 전해인, 2013),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부갈등이 높아지고(김정식, 2014), 풍습과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혼란으로 부부갈등 문제가 결혼생활 전반에 나타났다(양선화, 2004).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았고(신준옥, 2016),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수준이 높았으며(이순자 외, 201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혜경, 전해인, 201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적대감과 문화충격, 사회적 편견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대감이 결혼만족도의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순자, 2014).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향수병과 문화충격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경, 전해인, 2013; 조진숙, 황재원, 2017; 서선숙, 백진아, 2017).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으면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9>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결과
유영희	201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면 결혼만족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
박용순, 송진영, 이순자	2012	적대감과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린다.
함진옥, 조인주	2012	문화충격, 차별감,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현미	2014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김정식	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신준옥	2016	결혼이주여성이 새로운 적응과정에서 받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이창운	2017	임파워먼트가 강화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결혼만족도는 증가한다.
-----	------	---

출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

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전 배우자나 한국에 대한 사전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된다.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 경험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로 인한 한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아존중감도 크게 위축되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결혼행복감은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김연수, 2007).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결혼생활에서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과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작용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박정숙, 2007).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한광현, 강상경, 2021). 우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낮은 문화 환경으로 이주 및 정착하며 다양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내적 심리 보호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견해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결과는 소시오미터 이론(sociometer theory)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한광현, 강상경, 2021).

이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검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기능하는 목적을 갖는데, 타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Leary & Baumeister, 2000; Leary, 2015).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적 특성을 가지는 개념이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 가족관계의 소원 등 사회생활에서 삶의 질이 저하될 때 받는 스트레스로 이해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관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이라는 결과물

이자, 상호관계 간에 중요한 예측변수로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위험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이와는 반대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봉초운 외, 2018; 김지혜, 2019; 박동진, 이지연, 2019; 한광현, 강상경, 2019; 김동건 외, 2020; 유승희, 2020; 김평화, 2020; Kim et al., 2014; Claudat et al., 2016).

결혼이주여성들은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에는 그중에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포함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이러한 요인은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하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반영된다(Berry et al., 1987).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적 특성을 가지는 개념이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관계의 소원 등 대인관계의 질이 저하될 때 유발될 수 있고 자아존중감을 하락시킬 수 있다(한광현, 강상경, 2021).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상호 관계적 특성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저하할 수 있는 요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은, 대체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다룬 연구는 대학생 혹은 성인 이민자(Kim et al., 2005; Kim et al., 2014; Claudat et al., 2016)부터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김지혜, 2019; 박동진, 이지연, 2019; 한광현, 강상경, 2019; 김평화, 2020), 조기유학생(이수연, 2009)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보고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진 결혼이주여성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순용 외, 2012; 김동건 외, 2020).

다음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견해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부정적인 정서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은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에서 문화환경 적응을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에서 맞춰 스트레스를 대처 접근하는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 이론을 통해 문화적응의 과정을 해석한 이 접근에서는 이주민들이 문화적인 접촉을 통해 겪게 되는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 사건이 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따라서 이

를 해소하기 위해 적응적 자원과 대처 반응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정진경, 양계민, 2004).

그리고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유래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은 개인적, 사회적 측면 둘 다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는데, 여기에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인 자원과 결점,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Ward & Kennedy, 1994).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내적심리 자원으로써 기능한다(Pearlin, 1989).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각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혜택을 누리지만, 부정적인 삶에 대한 사건에서는 거부 또는 상쇄시키려는 반응을 보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스러운 결과물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 & Mankowski, 1993). 이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받는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물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발생을 완화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요인이 자아존중감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도, 개인의 성격적 특성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을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주요한 심리적 대처 요인으로 보고 있다(신혜정 외, 2015; 김지현, 김보미, 2017; 봉초운 외, 2018; 유승희, 2020).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차별, 향수 또는 부적응, 불안, 후회, 분노, 자녀에 대한 염려와 같은 하위 요소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복순,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김지혜, 2019)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안윤숙, 김홍주, 2014; 신지현, 강현아, 2018)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거주기간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에 이주 초기는 생활문화의 차이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위축하다가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언어와 생활 적응과정에서 자신감이 높아져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장선아, 2021).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 내외에서 본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한 일방적인 한국 문화 수용을 강요받거나 압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은선경, 2010).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을 둘러싼 이중문화 환경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정적 사고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한 자존감 형성을 방해한다. 이러한 이중문화 환경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다(박주희, 남지숙, 2010).

<표 II-10>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Zamboanga et al.,	2009	미국에 거주하는 히스패닉계 청소년이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 약물사용과 같은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
Ozdemir & Stattin	2014	이민 청소년이 외모 및 인종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으로 인한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
홍진주	2004	결혼이주여성들이 받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박주희, 남지숙	2010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 내외에서 본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한 일방적인 한국 문화수용을 강요받거나 압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린다.
은선경	2010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 내외에서 본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한 일방적인 한국 문화수용을 강요받거나 압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덕희	2016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 영향을 미친다.
김지혜	2019	이질적인 문화가 상존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자신에 대한 가치와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
김소영, 홍세희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 높은 자아존중감이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다.
유승희	2020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속하는 자아존중감을 문화응스트레스에 대한 주요한 심리적 대처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동건	2020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한광현, 강성경	2021	결혼이주여성들은 낮은 문화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보호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출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

3)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결혼생활은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남성과 여성이 공식적인 혼례를 올리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상호 간 문화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결혼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심리·정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심리·정서적인 주요 요인으로 선행연구 검토 결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양순미, 정현숙, 2006)

특히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자신의 능력에 믿음이나 노력과 같은 내적 요인으로 지각할 수 있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나, 과제 난이도나 타인의 도움, 운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지각할 때는 수치심을 가질 수 있다. 대개 실패나 불충분한 수행에 대해 자신의 능력부족에 원인을 돌리게 되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기기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이도경, 2020). 이렇듯 결혼생활 과정에서의 만족은 문제 원인 지각을 현실적·합리·실용적인 측면으로 이끌어 줌으로써, 자아존중감이 향상할 때 결혼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성취적 예언이 높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과업이나 과제 앞에서도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Rosenberg, 1965). 또한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간을 매개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이다(박용순, 송진영, 이순자 2012)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이주의 삶은 자아존중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생활사건이다. 자아존중감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문화적응과 개인의 전반적인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Virupaksha, Kumar & Nirmala, 2014). 지배적인 사회 구성원보다 소수자의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어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주민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Dvorakova, 2018).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경험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경우 문화적·사회적 지위에서 배제 위협에 처해 있는 것에 더해 삼중 차별을 받을 수 있어 자아존중감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내적 심리 스트레스 수준, 불안 및 우울 수준 등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Nesdale et al., 1997; Nesdale &

Mak, 2000; Hovey & Magana, 2002). 하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Pyszczynki et al., 2004),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변수로 밝혀졌다(Panchanadeswaran & Dawson, 2011).

국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성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두 변인 간의 관계성을 입증하였다(이은영, 2009).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아지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생활의 적응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결혼생활 적응과 결혼만족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부부 모두에게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양순미, 정현숙, 2006).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부 적응이 높게 나타나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적응에 유리하고 결혼만족도가 높다.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내 외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내적 심리 자원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아존중감이 직업보다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여 심리적 건강의 중요성을 밝혔다(김지현, 김보미, 2017).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자아존중감이 증진되었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김진희 외, 2018).

이상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부관계에서 기혼 여성의 경우 긍정적인 자아와 높은 자아존중감은 배우자와의 관계 형성과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새로운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높고, 가족과 사회관계에 원만하게 하므로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두 변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표 II-11>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결과
Hovey & Magana,	2002	결혼이주여성인 경우 문화적·사회적 지위에서 배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더해 삼중적 차별을 받을 수 있어 자아존중감이 손상되고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
양순미, 정현숙	2006	자아존중감은 심리·정서적인 주요 요인으로 결혼이주여성 결혼생활 적응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송경신	2010	자아존중감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다.
박용순, 송진영 이순자	2012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간을 매개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이다
문무현, 한진한	2018	결혼이주여성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경우 결혼만족도, 가족건강성, 생활만족도, 삶의 질, 구직효능감, 적응유연성 등 삶의 긍정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김진희, 박서진 이진아	2018	자아존중감이 증진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감소하고 결혼만족도는 높아진다.

출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

4)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의 관계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 속에서 살다가 다른 문화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현상을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고 한다(Williams & Berr, 1991).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은 특성상 낯선 문화에 대한 갈등과 변화, 적응과 부적응의 경험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신들이 성장한 모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며, 모국 문화와 이주국의 주류 문화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이주국 문화적응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 가족 문화와 교육 분위기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 어려움이 있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자 개인의 문화적응문제와 동시에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rry(1990)는 문화적응유형을 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 분류하였다. 그중 통합은 모국 문화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하며, 분리는 자국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만을 고집하고 낯선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것을 의미한다. 김현경(2009)에서는 통합유형의 결혼이주여성은 부모효능

감이 높았던 반면 분리유형은 낮은 부모효능감을 보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재사회화 과정은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분석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간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박소은, 이채원, 2012).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도 앞선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김소희, 노윤구, 2018). 결혼과 동시에 타 문화권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압박감, 문화적 충격, 차별과 향수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낯선 환경 속에서 본인을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낮은 자신감으로 이어졌다(유수정 외, 2021).

결혼이주여성들이 꿈꾸는 ‘코리아 드림’의 완성은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주류로 편입되고, 자신들의 모국에서도 당당하게 대접받는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석원정, 2008). 자녀는 한국과 자신을 연결시켜 주는 확실한 연결고리로서 적응하는데 독려가 되고 동기가 될 수 있다(김이선, 2007).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남성가의 혼인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 오는 사례가 많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자녀를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져 부모역할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 양육을 해야 함으로써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로서 역할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부모효능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선행된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의 관련들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 청소년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2020년대부터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들 우울 사이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고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녀교육의 경험과 지식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등 문화적 요인도 부모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자신의 재사회화 과정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과 행동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유수정 외, 2021).

선행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유지희, 2021),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이 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오은정,

오미정, 2018; 김소희, 노원구, 2018; 연은모, 최효식, 2019).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과 관련되어 자녀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임양미, 2019), 사회적 지지와 부모효능감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하는 효과를 중단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있다(최가희, 2020). 그뿐만 아니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간 관계성이 있음을 나타낸 연구도 있었는데 이주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삶의 질,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한 부모의 출신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며 부모가 국적별 국가 지원 요구를 밝혔다(오재연, 2014).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유럽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모자, 라틴계 미국인 104명을 대상으로 부모효능감, 이웃 환경,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경제적 지위 등 변인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전략에 미치는 영향 탐구에서 라틴계 어머니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모효능감은 더 감소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의 육아에 대한 자신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라 낮아져 양육행동 결정을 할 때 두 그룹의 문화 규범이 주는 문제와 스트레스를 동시에 균형 있게 맞출 필요가 있다(Ceballo & Hurd, 2008). 캐나다에 조기 사춘기 아이를 둔 이민자 중국인 부모 17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가 캐나다 문화를 더 잘 받아들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지고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ostigan & Koryzma, 2011)

또한 심리적·정서적 상태는 부모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어머니들에게 더 낮은 효능감을 주는 경향이 있다(Bandura, 1977) 또 긍정적인 정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성공과 행복감에 대한 생각을 촉발시키고 지각된 차별과 향수병 등으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를 떨어뜨려 부모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고 부모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문화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래현, 장혜림, 2019).

즉 모국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와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문제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적으며(Ying & Han, 2008; Toro & Nieri, 2018), 주변에서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소극적이고 높은 부모효능감을 얻기 어렵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저하시키고 이는 자녀의 성취동기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활동에 관심이 적어지게 되고 이는

부모효능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자녀의 학교 및 사회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임양미, 2019)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경우 부모효능감의 저하로 인해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양육자로서의 효능감 저하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녀의 사회 및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부모효능감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홍일, 2020).

그러나 문화적응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연구들에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났다. 문화적응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부모효능감이 감소한다. 이는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도와 원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높을수록, 즉 통합유형을 보이는 어머니일수록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같은 맥락의 연구에서는 통합적 문화적응유형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인지능력과 부모신념이 높아져 부모효능감이 증가하게 된다(전보영, 2012).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도 고유문화 정체성을 간직하고 확립하였을 경우 자신감을 갖고 자녀양육에 임하여 부모효능감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상의 문헌연구들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효능감이 떨어지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 및 양육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소극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 저하를 초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의 우울 간에 부모효능감이 유의미한 매개효과 역할을 함을 확인함으로써(보금로, 장영은, 202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양육효능감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1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결과
Bandura,	1997	심리적 정서적 상태는 부모효능감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받는 어머니들에게 더 낮은 효능감을 주는 경향이 있다.
Koniak-Griffin et et al.,	2006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에서의 자녀 양육 방식과 한국사회의 양육 방식 간 차이에 오는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
Ceballos & Hurd	2008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부모효능감은 더 낮아졌고 결혼이주여성의 육아 자신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라 감소한다.
Costigan & Koryzma	2011	부모가 캐나다 문화에 더 잘 적응 할수록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들의 효능감이 높아지고 자녀양육에 적극적이다.
김현정	2009	문화적응수준이 높은 통합형의 부모는 부모효능감이 높은 반면, 분리형의 부모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보였다.
전보영	2012	통합적 문화적응유형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인지능력과 부모인념이 높아져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
김소희,노원구	2018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떨어진다.
이래현,장혜림	2019	결혼이주여성의 성공과 행복감에 대한 생각을 촉발시키고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등으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를 하락시켜 부모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수정 외	2021	낮선 문화적응에 대한 문화적 충격, 차별과 향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출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

5) 부모효능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Goenn, 1990; White & Booth, 1991), 이는 자녀 양육부담과 이로 인한 부부 사이의 갈등, 그리고 부부 서로에게 집중되고 배려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 등이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조성희, 박소영, 2010). 이와 반대로 자녀의 존재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urdek, 1995)도 있는데 이는 자녀가 부부의 결혼생활을 안정하게 만들어 주므로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효능감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다(김지연, 이지민, 2011).

부모효능감을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라 하여 양육효능감(안지영, 2002) 이라고 한다. 양육효능감은 부모 역할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어려운 상황과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안지영, 2002).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 과제에 대한 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고 자녀 양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동기 부여에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인지적 특성이다(Kim, 2008; Catherine & Celine, 2011).

아울러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을 지닌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양육행동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다.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낮음과 동시에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자녀의 발달 등을 촉진시키는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Ahn, 2002). 그러므로 부모효능감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유도하고, 자녀의 심리적 안정,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만족도와 이어질 수 있다(양정우, 어용숙, 2019).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해서 4년~9년 사이에 이혼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발달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자녀 양육기’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시기는 부부가 자녀양육을 함에 있어서 부모 역할 및 생활변화에 적응하는 시기로, 자녀 양육으로 인해 늘어난 가사 일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부부간의 성역할 분담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녀 양육기’에 있는 부부의 경우 양육 대체인력 및 양육 방식, 책임에 대한 조정·적응 등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없고,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으로 인해 부부의 결혼만족도도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다(윤기봉, 연경, 2017).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해서 ‘자녀 양육기’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들이 이 시기에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최초의 시기이자 부부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시작하여 결혼만족도가 점점 더 저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나남숙, 이인수, 2017; Rehman, Janssen, & Newhouse et al., 2011). 이러한 결혼만족도의 저하는 이혼 및 별거, 가출 등과 같은 가족해체의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부부의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에 어려움과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성장·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Friedman & Martian, 2011).

그리고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부 중에서 양육과 전반적인 가사 일에 대한 성 역할을 함께 수행하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 충실한 부부일수록 자녀 양육에 있

어서 부모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 부모효능감을 나타내는 부부일수록 삶의 질과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부 중에서 전반적인 가정에서 성역할이 유연성이 없고 부부간의 일관성, 응집성이 낮은 부부들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낮은 자신감이 낮고, 불안감, 우울감 등을 보이며 양육효능감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에 대한 우울감, 불안감, 불만족으로 이어져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은경, 김영희, 2016; 이영진, 장은미, 2018).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며 있어서 효능감을 어느 정도 뛰어나게 효율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므로(Coleman & Karraker, 1997), 가정에서 주 양육자인 아내의 양육효능감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편의 양육효능감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부모효능감이 높으면 본인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더 나아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다 관대하고 온화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효능감이 부부간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Kwok, & Ling, 2015, Korja et al., 2016).

선행연구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효능감은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며(김지현, 이지민, 2011), 부부의 양육효능감은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혜림, 이지민, 2019).

결혼이주여성들은 일반 어머니와 달리 언어 차이 문화차이 이주적응 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준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실제 양육과정에서 적극적인 양육행동과 태도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김미영, 2018). 결혼이주 여성은 낮은 한국에서 언어장애,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를 겪더라도 높은 부모효능감을 얻으면 어려움을 잘 적응하고 극복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또한, 부모효능감은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출산 양육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녀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모효능감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이경숙, 2015).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는 아무리 낯설고 고독한 한국사회에서 유일한 혈연관계이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이다(박소은, 이채원, 2012). 그러나 결혼이주 여성은 문화적 차이 언어적 제약 등으로 인해 한국인 어머니와 성격이 다른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 역할보다는 어머니 역할의 비중이 높고 어머니는 늘 주요 양육자로 여겨지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 소외감 우울감 등의 감정이 자녀

양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상식, 2007).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은 부모효능감이 하락한다(김지현 외,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 가정의 어머니보다 자녀 상호작용에 부정적이고 피동적이며 양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녀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낮아 양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금로, 2022).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이 낮고 불안감이 높을 때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므로 부모효능감과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

결혼이주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이라는 큰 삶의 변화와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어머니는 심리적 정신적 불안정으로 자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최형성, 2010). 또한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다른 양육행동을 보이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보여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효능감이 낮다는 연구도 있다(이승희, 박응임, 2016). 반면 심리적 안정감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신념을 갖기 때문에 부모효능감은 높아지고 더불어 결혼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보금로, 2022).

<표 II-13> 부모효능감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결과
Korja et al.,	2016	부모효능감이 높으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더 나아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효능감이 부부 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식	2007	높은 부모효능감은 본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지연, 이지민	2011	부모효능감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어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다
이경숙	2015	결혼이주여성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녀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모효능감도 높게 나타나 결혼만족도는 높아진다.
윤기봉, 연경	2017	부부가 자녀양육에 필요한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효능감은 떨어지고 결혼만족도는 현저하게 감소된다.
나남숙, 이인수	2017	결혼해서 '자녀 양육기'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는 이 시기에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최초의 시기이자 부부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시작하여 결혼만족도가 점점 더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영진,장은미	2018	낮은 양육효능감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우울감, 불안감, 불만족으로 인해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혜림,이지민	2019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양정우,어용숙	2019	양육효능감은 부모 자신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끔 유도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금로	2022	심리적 안정감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게 되며 부모효능감은 높아지고 더불어 결혼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출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을 갖지 않고 있어 좀 더 심층적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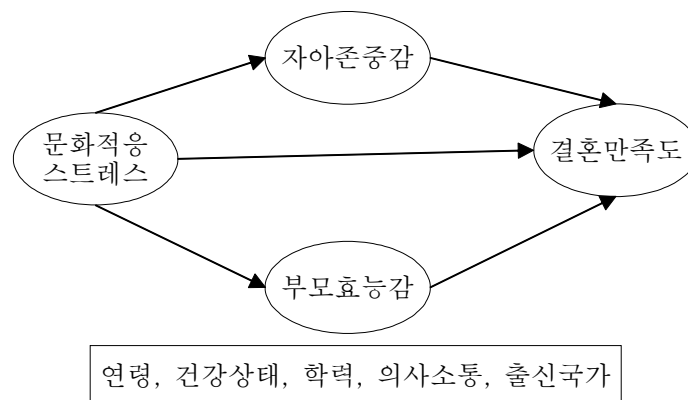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2020년도 조사의 다문화 청소년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응답한 자료를 대상으로 2,249명의 모집단에서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와 자녀가 있는 대상자를 케이스 선택하여 최종 1,781명을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전문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조사 도구는 태블릿PC(TAPI)를 이용하였다. 외국 출생 학부모(어머니)의 경우 한국어 및 총 9개 외국어¹⁾(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제시)로 번역된 설문지가 제공되었으며, 외국 출생 학부모(어머니)가 언어를 선택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최종 결과공표(기초분석보고서)는 2021년 12월 31일, 최초 데이터 공개는 2022년 12월 20일에 개방되었다.

1) 9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아랍어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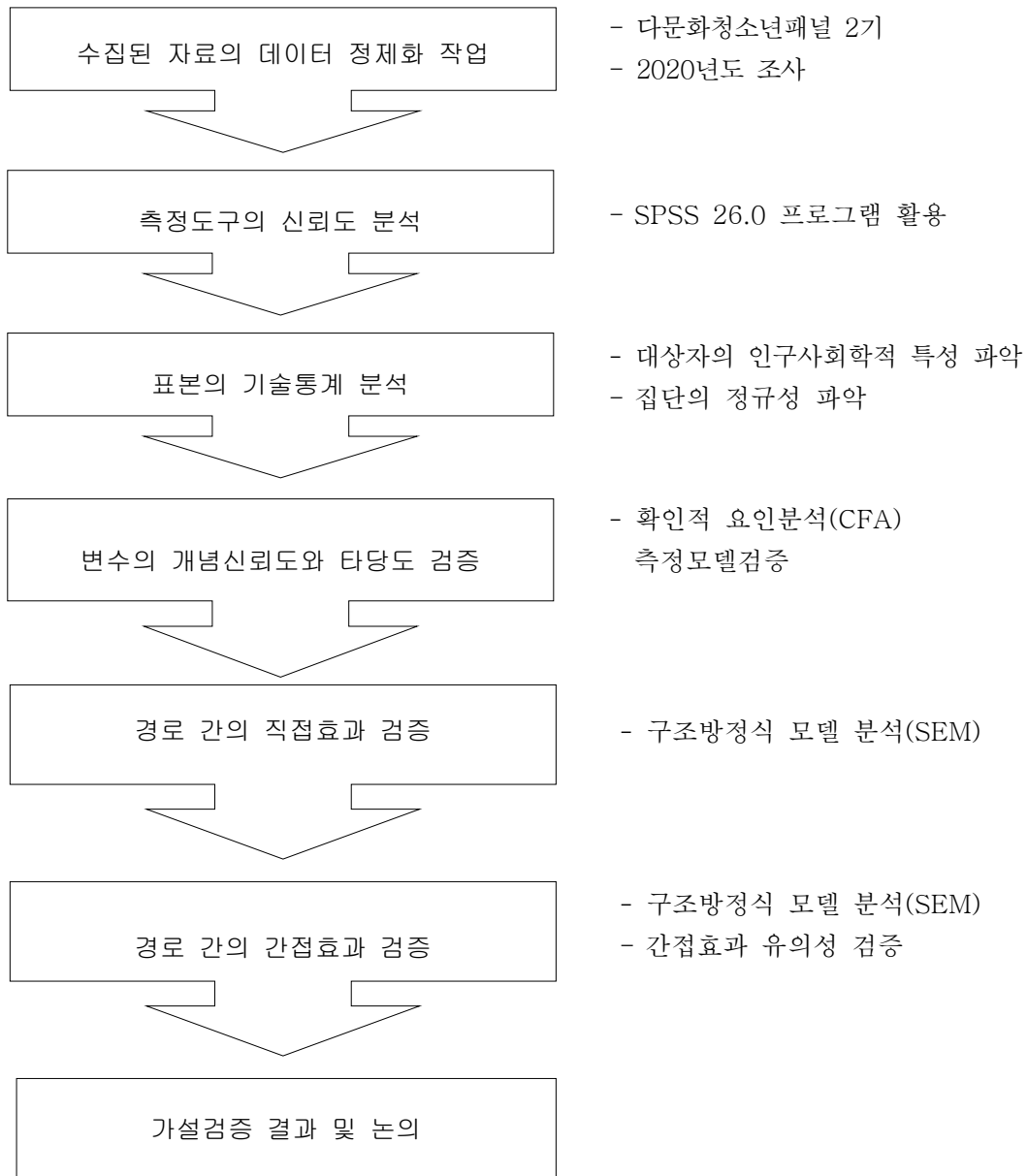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그림 III-1>. 이를 통해 경로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모형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결혼만족도를 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간접효과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III-1] 연구모형

위 연구모형에 따른 분석절차 체계도는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연구모형 분석 절차의 체계도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에 근거한 연구가설 설정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 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 <연구가설 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을 것이다.
- <연구가설 3>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 5>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낮을 것이다.
- <연구가설 6>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7>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모 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있을 것이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결혼이주여성의 변수별 측정도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이다. 이들 척도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질문지에 자기 기입방식으로 응답하도록 작성되었다. 문항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7문항, 자아존중감 9문항, 부모효능감 8문항, 결혼만족도 2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III-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는 항목 외에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III-1> 질문지의 구성에 따른 변수명과 출처

변수명	문항수	출처
문화적응 스트레스	7 (5점 척도)	이승종이 1995년에 번안하고 이소래가 1997년에 수정한 것을 MAPS 1기가 사용한 척도
자아존중감	9 (5점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MAPS 1기가 사용한 척도
부모효능감	8 (5점 척도)	Gibaude-Wallstom & Wandersman(1978)의 척도를 신숙재가 1997년에 번안 및 수정하고 MAPS 1기가 사용한 척도
결혼만족도	2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2018) 척도를 수정. MAPS 1기가 사용한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도구는 1995년 이승종 번안, 1997년 이소래가 수정하고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1기가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나는 고향을 떠나 낯선 문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슬프다’, ‘나는 내가 태어난 곳과 사람들이 그림자다’, ‘나는 외국 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한 후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841로 나타났다.

<표 III-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항	설문 문항 내용	응답범주	신뢰도
1	나는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Likert 5점 척도	.841
2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4	나는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게 슬프다.		
5	나는 내가 태어난 곳과 사람들이 그림다.		
6	나는 외국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제외)		
7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위축: 자신감이 없고 기를 펴지 못하는 상태)		
8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2) 자아존중감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의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다문화청 소년패널(MAPS) 1기가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 부여하는 5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중 3, 5, 8, 9번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므로 역 코딩한 후 분석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829로 나타났다.

<표 III-3> 자아존중감

문항	설문문항 내용	응답범주	신뢰도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Likert 5점 척도	.829
6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8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 부모효능감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의 측정도구는 Gibaude-Wallstom & Wandersman(1978)의 척도를 신숙재(1997)이 번안 및 수정하고 MAPS 1기가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나는 부모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등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 부여하는 5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중 8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므로 역코딩한 후 분석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845로 나타났다.

<표 III-4> 부모효능감

문항	설문문항 내용	응답범주	신뢰도
1	나는 내가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Likert 5점 척도	.845
2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 한다.		
3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4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6	나는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		
7	나는 부모역할을 잘 하고 있다.		
8	나는 부모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4) 결혼만족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의 측정도구는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2018) 척도를 수정. MAPS 1기가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등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매우 나쁘다’ 1점에서부터 ‘나쁜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좋은 편이’ 4점, ‘매우 좋다’에 5점까지 부여하는 5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정 형편에 대한 지각은 ‘아주 어렵다’ 1점에서부터 ‘어려운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잘사는 편이다’ 4점, ‘아주 잘 산다’에 5점까지 부여하는 5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와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표 III-5> 결혼만족도

문항	설문문항 내용	응답범주	신뢰도
1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Likert	.591
2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5점 척도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과 AMOS 2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주요 변수들의 중심경향 파악을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의 정규분포성 확인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VIF 값을 파악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Cronbach α 값을 도출하였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의 개념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넷째,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통해 직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팬텀변수를 설정하고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여섯째,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시스트래핑을 5,000회 반복 추출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절차는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개념이나 잠재변수가 측정변수에 의해 얼마나 제대로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델 검증을 확인하고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둘째, 모델의 수정 여부 확인을 위해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카이제곱 검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홍세희(2000)가 개발한 적합도 지수 중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지수인 CFI, TLI, RMSEA²⁾와 절대적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RMR을 기준으로 모델의 수용여부를 판단하였다.

2) 홍세희(2000)는 NNFI(AMOS에서는 TLI로 표기)가 표본의 크기와 모형의 간명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어 적합도 지수가 지녀야 할 조건을 잘 충족시키고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NFI가 널리 사용되는 기준이기는 하나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CFI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으며, CFI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다른 지수 RMSEA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연령은 ‘25세~40세 미만’ 1210명(67.9%), ‘41세~56세’ 571명(32.1%)로, 연령은 ‘25세~40세 미만’이 ‘41세~56세’ 보다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은 ‘중졸 이하’ 523명(29.4%), ‘고졸’ 807명(45.3%), ‘대졸’ 451명(23.5%)로 결혼이주여성이 고졸이 차지하는 수가 제일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졸 이하, 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매우 나쁘다’ 5명(0.3%), ‘나쁜 편이다’ 84명(4.7%), ‘보통이다’ 542명(30.4%), ‘좋은 편이다’ 962명(54.0%), ‘매우 좋다’ 188명(10.6%)로 ‘좋은 편이다’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나쁘다가 제일 적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매우 좋다’, ‘나쁜 편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전혀 안 된다’ 3명(0.2%), ‘잘 안 되는 편이다’ 100명(5.6%), ‘잘 되는 편이다’ 1101명(61.8%), ‘매우 좋다’ 577명(32.4%)로 ‘잘 되는 편이다’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잘 된다’, ‘잘 안 되는 편이다’, ‘전혀 안된다’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잘 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출신국에서는 ‘중국(한족, 기타민족)’ 330명(18.5%), ‘중국(조선족)’ 265명(14.7%), ‘베트남’ 608명(34.1%), ‘필리핀’ 177명(9.9%), ‘일본’ 110명(6.2%), ‘태국’ 40명(2.2%), ‘기타’ 254(14.3%)로 ‘베트남’이 제일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국(한족, 기타민족)’, ‘조선족’, ‘기타’, ‘필리핀’, ‘일본’,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 출신 여성들이 제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781)

	구분	빈도수(명)	비율(%)
연령	25세 ~ 40세 미만	1210	67.9
	41세 ~ 56세	571	32.1
학력	중졸이하	523	29.4
	고졸	807	45.3
	대졸	451	25.3
전반적인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5	0.3
	나쁜 편이다	84	4.7
	보통이다	542	30.4
	좋은 편이다	962	54.0
	매우 좋다	188	10.6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전혀 안 된다	3	0.2
	잘 안 되는 편이다	100	5.6
	잘 되는 편이다	1101	61.8
	매우 잘 된다	577	32.4
어머니 출신국가	중국(한족, 기타민족)	330	18.5
	중국(조선족)	265	14.8
	베트남	608	34.1
	필리핀	177	9.9
	일본	110	6.2
	태국	40	2.2
	기타	254	14.3

2. 기술통계 분석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기술통계 분석의 결과는 <표 IV-2>와 같이 나타났다.

외생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값(표준편차)은 2.25(.70),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평균값(표준편차)은 3.64(.65), 매개변수인 부모효능감의 평균값(표준편차)은 3.64(.55)로 분석되었다. 내생변수인 결혼만족도에서의 평균값(표준편차)은 3.68(.77)로 파악되었다.

기술통계의 평균값으로 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문화적응 스트레스 순으로 평균값을 나타냈다.

그리고 왜도는 .055~- .512, 첨도는 -.898~1.021로서 절대 값이 각각 2와 7 미만으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표 IV-2> 기술통계 분석

(N=1781)

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1.00	4.88	2.58	.70	-.055	-.176
자아존중감	1.33	5.00	3.64	.65	.306	-.898
부모효능감	1.00	5.00	3.64	.55	-.200	.857
결혼만족도	1.00	5.00	3.68	.77	-.512	.709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본 연구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인 연령, 학력, 전반적인 건강상태,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결혼만족도에 대한 평균비교(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의 차이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표 IV-3>, <표 IV-4>, <표 IV-5>, <표 IV-6>과 같이 분석되었다. 이때 평균 비교 분석에는 집단이 2개이면 독립표본 t검증, 3개이면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다. 일원 배치 분산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분석은 <표 IV-3> 과 같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 분석결과, 첫째, 연령에서 ‘25세~40세 미만’ 집단과 ‘41세~56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0.312$, $p>.05$). 둘째,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8.541$, $p<.001$). Sc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대졸’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하였다. 셋째, 전반적인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나쁨, 나쁜 편a’,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10.987$, $p<.001$). Sc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매우 나쁨, 나쁜 편a’,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전혀 안됨, 안 되는 편a’, ‘잘 되는 편이다’, ‘매우 잘 된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64,868$, $p<.001$). Sc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전혀 안됨, 안 되는 편a’, ‘잘 되는 편이다’, ‘매우 잘 된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다섯째,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서는 ‘중국(한족, 기타민족a)’,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기타’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확인되었다($F=10.784$, $p<.001$). Sc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중국(조선족)’ 집단과 일본’, ‘중국(한족, 기타민족)’, ‘기타’, ‘태국’, ‘베트남’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는 연령을 제외한 학력, 전반적인 건강 상태,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분석

(N=1781)

구분		N	M	SD	t/F	유의 확률	scheffe
연령	25세 ~40세 미만	1210	2.6102	.7001	.312	.576	
	41세 ~ 56세	571	2.5204	.7116			
학력	중졸이하a	523	2.6456	.7177	8.541	.000	a,b>c
	고졸b	807	2.6035	.9969			
	대졸c	451	2.4676	.0336			
전반 적인 건강 상태	매우나쁨, 나쁜 편a	89	2.7570	.7966	10.987	.000	d>c,b,a
	보통이다b	542	2.6612	.6594			
	좋은 편이다c	962	2.5644	.7033			
	매우 좋다d	188	2.3551	.7378			
자녀 와의 의사 소통	전혀안됨, 안 되는 편a	103	2.9563	.6978	64.868	.000	a>b>c
	잘 되는 편이다b	1101	3.5435	.6661			
	매우 잘 된다c	577	3.8677	.7049			
어머 니의 출신 국가	중국(한족, 기타민족)a	330	2.5841	.6996	10.784	.000	c,d,f,g,a,e <b
	중국(조선족)b	262	2.2891	.7423			
	베트남c	608	2.6996	.6951			
	필리핀d	177	2.6504	.6498			
	일본e	110	2.5068	.6498			
	태국f	40	2.6344	.5514			
	기타g	254	2.5965	.6970			

*p<.05, **p<.01, ***p<.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분석은 <표 IV-4> 와 같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결과, 첫째, 연령에서 ‘25세~40세 미만’ 집단과 ‘41세~56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0.088$, $p>.05$). 둘째,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6.709$, $p<.001$). Sc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대졸’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하였다. 셋째, 전반적인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나쁨, 나쁜 편a’,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29.759$, $p<.001$). Sc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매우 나쁨, 나쁜 편a’,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전혀 안됨, 안 되는 편a’, ‘잘 되는 편이다’, ‘매우 잘 된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57.092, p<.001). S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전혀 안됨, 안 되는 편a’, ‘잘 되는 편이다’, ‘매우 잘 된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다섯째,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서는 ‘중국(한족, 기타민족)’,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기타’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확인되었다(F=10.784, p<.001). S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중국(한족, 기타민족)’,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기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는 연령을 제외한 학력, 전반적인 건강 상태,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의 출신 국가 등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분석

(N=1781)

	구분	N	M	SD	t/F	유의 확률	scheffe
연령	25세 ~40세 미만	1210	3.6233	.6455	0.088	.767	
	41세 ~ 56세	571	3.6803	.6502			
학력	중졸이하a	523	3.6136	.6198	6.709	.001	c>a,b
	고졸b	807	3.6061	.6442			
	대졸c	451	3.7376	.6760			
전반 적인 건강 상태	매우나쁨, 나쁜 편a	89	3.4644	.6375	29.759	.000	d>c>b,a
	보통이다b	542	3.4846	.6211			
	좋은 편이다c	962	3.6866	.6242			
	매우 좋다d	188	3.9474	.6992			
자녀 와의 의사 소통	전혀안됨, 안 되는 편a	103	3.4229	.6316	57.092	.000	c>b,a
	잘 되는 편이다b	1101	3.5435	.6093			
	매우 잘 된다c	577	3.8677	.6612			
어머 니의 출신 국가	중국(한족, 기타민족)a	330	3.6811	.6653	10.784	.000	g,b,a,f,c,d <e
	중국(조선족)b	262	3.7379	.6707			
	베트남c	608	3.5691	.6130			
	필리핀d	177	3.5775	.6361			
	일본e	110	3.4768	.6125			
	태국f	40	3.6722	.5879			
	기타g	254	3.7756	.6735			

*p<.05, **p<.01, ***p<.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분석은 <표 IV-5>와 같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차이 분석결과, 첫째, 연령에서 '25세~40세 미만' 집단과 '41세~56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5.262$, $p>.05$). 둘째,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5.265$, $p<.001$). S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대졸'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하였다. 셋째,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서는 '매우 나쁨, 나쁜 편a',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40.087$, $p<.001$). S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매우 나쁨, 나쁜 편a',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전혀 안됨, 안 되는 편a', '잘 되는 편이다', '매우 잘 된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82.939$, $p<.001$). S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전혀 안됨, 안 되는 편a', '잘 되는 편이다', '매우 잘 된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다섯째,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서는 '중국(한족, 기타민족)',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기타'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3.812$, $p>.05$).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과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제외한 학력, 전반적인 건강 상태,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분석

(N=1781)

	구분	N	M	SD	t/F	유의 확률	scheffe
연령	25세 ~40세 미만	1210	3.6363	.5434	15.262	.212	
	41세 ~ 56세	571	3.6434	.5631			
학력	중졸이하a	523	3.5750	.5206	15.265	.001	c>a,b
	고졸b	807	3.6129	.5485			
	대졸c	451	3.7580	.5672			
전반 적인 건강 상태	매우나쁨, 나쁜 편a	89	3.4930	.5981	40.087	.000	d>c>a,b
	보통이다b	542	3.4892	.5419			
	좋은 편이다c	962	3.6742	.5002			
	매우 좋다d	188	3.9555	.6246			
자녀 와의 의사 소통	전혀안됨, 안 되는 편a	103	3.2464	.6256	82.939	.000	c>b>a
	잘 되는 편이다b	1101	3.5673	.5149			
	매우 잘 된다c	577	3.8445	.5275			
어머 니의 출신 국가	중국(한족, 기타민족)a	330	3.6216	.5659	3.812	.061	
	중국(조선족)b	262	3.7047	.5433			
	베트남c	608	3.5701	.4963			
	필리핀d	177	3.6914	.6176			
	일본e	110	3.6068	.4628			
	태국f	40	3.6563	.4555			
	기타g	254	3.7303	.6264			

*p<.05, **p<.01, ***p<.001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분석은 <표 IV-6>과 같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분석결과, 첫째, 연령에서 '25세~40세 미만' 집단과 '41세~56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5.468$, $p<.05$). S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대졸'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하였다. 셋째, 전반적인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나쁨, 나쁜 편a',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59.783$, $p<.001$). S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매우 나쁨, 나쁜 편a',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전혀 안됨, 안 되는 편a', '잘 되는 편이다', '매우 잘 된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32.499$, $p<.001$). S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전혀 안됨, 안 되는 편a', '잘 되는 편이다', '매우 잘 된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다섯째,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서는 '중국(한족, 기타민족)',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기타'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1.943$, $p>.05$).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과 어머니의 출신 국가를 제외한 학력, 전반적인 건강 상태,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분석

(N=1781)

	구분	N	M	SD	t/F	유의 확률	scheffe
연령	25세 ~40세 미만	1210	3.87	.754	.974	.324	
	41세 ~ 56세	571	3.85	.761			
학력	중졸이하a	523	3.80	.755	5.486	.004	c>b,a
	고졸b	807	3.85	.745			
	대졸c	451	3.96	.768			
진반 적인 건강 상태	매우나쁨, 나쁜 편a	89	3.45	1.00	59.783	.000	d>c>b>a
	보통이다b	542	3.65	.754			
	좋은 편이다c	962	3.91	.666			
	매우 좋다d	188	4.38	.740			
자녀 와의 의사 소통	전혀안됨, 안 되는 편a	103	3.77	.759	32.499	.000	c>b,a
	잘 되는 편이다b	1101	3.27	.727			
	매우 잘 된다c	577	4.06	.768			
어머 니의 출신 국가	중국(한족, 기타민족)a	330	3.88	.714	1.943	.071	
	중국(조선족)b	262	3.85	.764			
	베트남c	608	3.83	.760			
	필리핀d	177	3.76	.814			
	일본e	110	3.94	.654			
	태국f	40	3.75	.870			
	기타g	254	3.96	.761			

*p<.05, **p<.01, ***p<.001

3). 상관관계 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내생변수인 결혼만족도와외 상관관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r=-0.188, p<.001$), 자아존중감($r=0.221, p<.001$), 부모효능감($r=0.261, p<.001$)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 결혼만족도는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과는 정적(+) 방향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부적(-)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외 관련성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r=-.0327, p<.001$)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부적(-)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부모효능감과외 관련성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r=-.205, p<.001$)는 부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표 IV-7> 상관관계 분석

구 분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1			
자아존중감	-.327***	1		
부모효능감	-.205***	.463***	1	
결혼만족도	-.188***	.221***	.261***	1

*** $p<.001$

3. 측정모형 검증(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반영하는지 파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구조방정식을 활용하는 AMOS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 및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실재 관측되지 않은 잠재변수의 수와 설문 문항으로 이뤄진 실재 측정변수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는 확인적 요인분석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특정한 측정변수가 관련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다른 요인과는 관련되지 않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 검증과정에 가까우며, 이론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Stapleton, 1997: 배병렬, 2022).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러한 가정 아래 데이터 내의 공분산행렬과 측정모델의 추정 공분산행렬의 일치 정도 또는 측정모델 적합도(model fit)의 판정과 동시에,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검정 등의 추가적인 분석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비해 엄격하고 보수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변수들이 연속형 데이터로 구성되어야 하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델의 적합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설명력이 낮은 변수가 있다면 모델의 적도 확보를 위해 정제되어야 한다. 이후 추가적으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의 검정을 거치게 된다.

모델적합도 지수는 일반적으로 절대적합도 지수를 활용하는데 이는 연구자가 수집한 이론적 배경과 데이터의 공분산행렬을 바탕으로 한 측정모델의 추정 공분산행렬의 적합 여부를 검정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첫째, 표본의 공분산행렬과 측정모델의 추정 공분산행렬의 분포 차이를 알아보는 χ^2 검정이다. 이는 모델적합도 지수 중 통계량을 유일하게 제시해 주며, 두 공분산행렬 간에 차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chi^2(p)$ 값이 .05 이상일 때 모델적합도가 확보된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 및 모델의 복잡성 등에 따라 χ^2 검정 결과값은 상이하게 드러나는 한계점을 노출하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둘째, 오차(residual)행렬은 표본의 공분산행렬과 측정모델의 추정 공분산행렬 차이로 본다. 이때 오차행렬이 '0'에 근접하면 두 공분산행렬의 분포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검증은 RMR(root mean-square residual)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RMR지수는 .05 이하이고

RMSEA지수는 .1 이하이면 모델적합도의 확보 요건으로 본다(최창호, 유연우, 2017).

셋째, 표본의 공분산행렬이 측정모델의 추정 공분산행렬에 따라 설명되는 비율로써 '1'에 근접해야 두 공분산행렬의 분포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 GFI(goodness of fit index)지수를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0.9 이상이 확보되면 모델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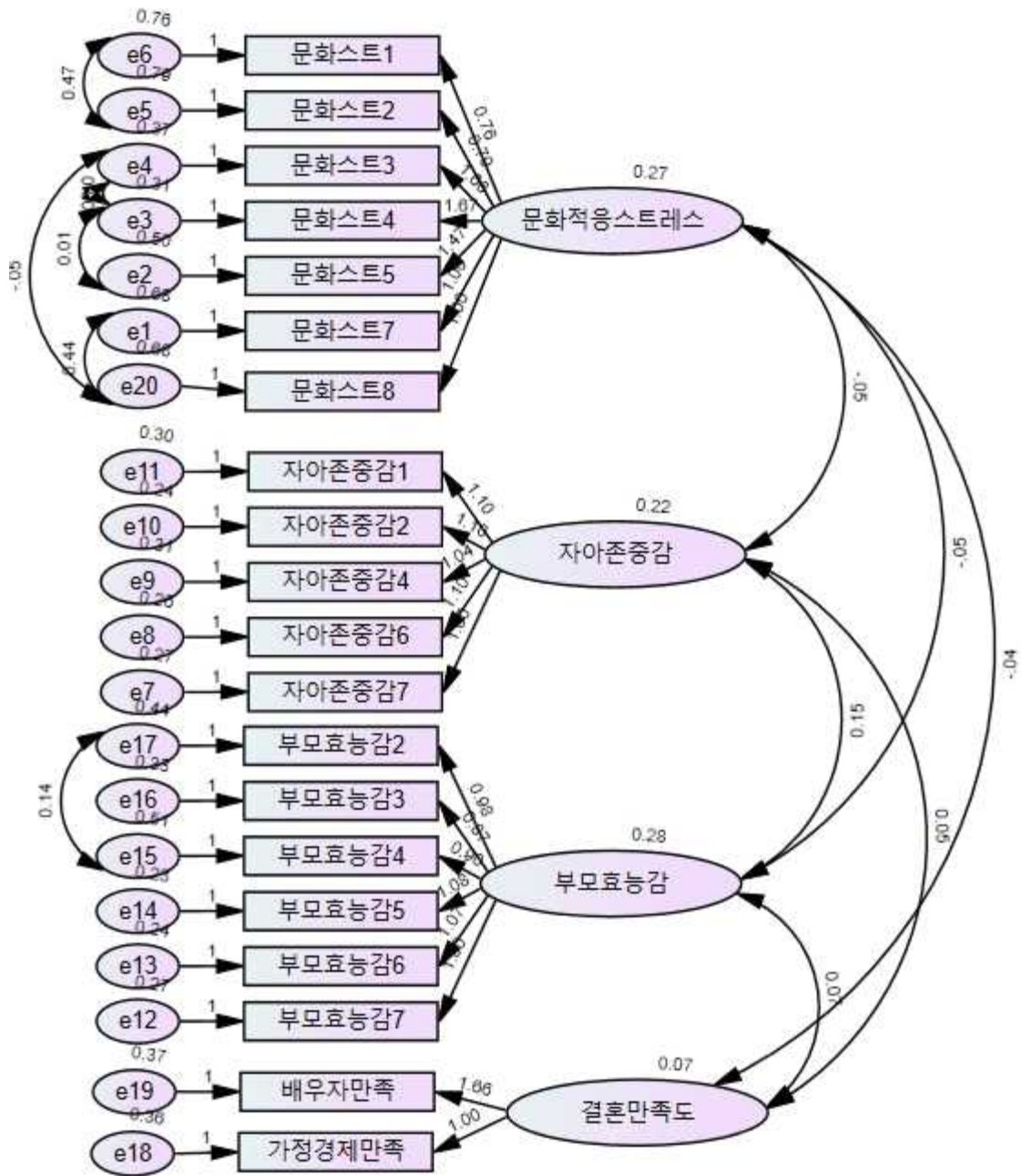
이 외에도 증분적합도 지수(incremental fit index)로서 CFI, TLI, NFI, 등이 있는데 이들의 지수도 일반적으로 0.9 이상이면 모델적합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간명적합도 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서 PNFI, PGFI 등이 있으며 지수가 낮을수록 모델적합도가 확보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측정모델 분석을 파악한 상태에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을 실행하여 가설을 검증하게 된다. 다음의 [그림IV-1]은 본 연구모형을 토대로 작성된 구조방정식의 측정모형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결과는 [그림IV-1]과 같다. 적합도 지수 검증에서 TLI = .915, IFI= .930, CFI= .929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가 0.90에 근접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RMSEA= .059로 LO가 .056, HI가 .063으로 파악되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델에서 추정한 공분산행렬과 표본 데이터의 공분산행렬의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이로써 본 연구의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양호하여 수정모델을 측정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델의 검증 결과는 다음 <표 IV-8>과 같다.

<표 IV-8>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지수	χ^2	df	p	RMR	TLI	IFI	CFI	RMSEA
기준값	-	-	-	.05이하	.9이상	.9이상	.9이상	.1이하
측정값	1146.045	158	.000	.051	.915	.930	.929	.059
적합도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그림 IV-1] 확인적 요인모형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모형에서 나타난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를 잠재변인으로 하여, 각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은 탐색적 요인분석(CFA) 결과를 바탕으로 관측변인을 구성하여 연구모형에 반영하였다. 자유모수 추정치는 <표 IV-9>와 같이 모두 유의하게 보였다.

<표 IV-9> 측정모형의 자유모수 추정치

	변수	B	β	S.E.	C.R.	P
	→ 문화적응 스트레스-07	1.000				
	→ 문화적응 스트레스-08	.998	.535	.035	28.779	***
문화적응 스트레스	→ 문화적응 스트레스-05	1.468	.735	.074	19.924	***
	→ 문화적응 스트레스-04	1.670	.843	.090	18.539	***
	→ 문화적응 스트레스-03	1.656	.820	.083	19.972	***
	→ 문화적응 스트레스-02	.790	.420	.054	14.571	***
	→ 문화적응 스트레스-01	.762	.415	.053	14.429	***
	→ 자아존중감-07	1.000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06	1.101	.714	.044	25.026	***
	→ 자아존중감-04	1.040	.661	.044	23.537	***
	→ 자아존중감-02	1.097	.727	.043	25.368	***
	→ 자아존중감-01	1.096	.687	.045	24.273	***
	→ 부모효능감-07	1.000				
부모효능감	→ 부모효능감-06	1.068	.756	.038	28.347	***
	→ 부모효능감-05	1.084	.767	.038	28.677	***
	→ 부모효능감-04	.897	.554	.043	21.111	***
	→ 부모효능감-03	.871	.628	.036	23.951	***
	→ 부모효능감-02	.976	.616	.042	23.446	***
	→ 가정경제만족도	1.000				
결혼만족도	→ 배우자만족도	1.661	.413	.205	7.117	***

*** p<.001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다중상관자승치(SMC)는 <표 IV-10>와 같이 .163, .234, .252, .301, .343, .371, .388, .395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구조모형 적합도지수가 $\chi^2=1582.024(p<.001)$, $df=158$, $RMR=.068$, $TLI=.878$, $IFI=.898$, $CFI=.898$ 였으

며, RMSEA=.059로 LO가 0.68, HL가 0.074로 나타나 모형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 1, 2번 문항과 가정경제만족도의 다중상관자승치(SMC) 값이 나쁜 편이나 상관관계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적합도 검증에서 모두 적합하게 나타났고, 나머지 변수들은 .40이상으로 구성되어 제거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IV-10> 다중상관자승치(SMC)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01	.234
	문화적응 스트레스-02	.252
	문화적응 스트레스-03	.540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04	.576
	문화적응 스트레스-05	.470
	문화적응 스트레스-07	.426
	문화적응 스트레스-08	.388
	자아존중감-01	.479
	자아존중감-02	.58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04	.434
	자아존중감-06	.522
	자아존중감-07	.444
	부모효능감-02	.371
	부모효능감-03	.395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04	.301
	부모효능감-05	.603
	부모효능감-06	.577
	부모효능감-07	.495
결혼만족도	가정경제만족도	.168
	배우자만족도	.343

4. 측정모형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의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집중타당도는 개념 신뢰도로 <표 IV-11>과 같이 파악하였으며, 판별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치로 평가하였다.

1)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개념신뢰도는 신뢰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표준화요인부하량 합의 제곱을 분자로, 표준화요인부하량 합의 제곱과 측정오차 분산합의 합을 분모로 한 값이며 일반적으로 0.7 이상을 내포해야 한다. 집중타당도는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복수의 척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배병렬, 2022). 일반적으로 집중타당도의 평가는 개념 신뢰도 값을 적용한다. 집중타당도는 개념 신뢰도의 값이 0.7 이상일 때 집중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다(Anderson & Gerbing, 1988; Hair et al., 1998). 개념신뢰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개념신뢰도} = \frac{(\sum \text{표준화추정치})^2}{(\sum \text{표준화추정치})^2 + \sum \text{측정오차}}$$

분석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표준화요인부하량 전체 합은 3.768, 표준화요인부하량 전체 합의 제곱 14.198+ 측정오차분산의 합 .4.05를 보여 공식으로 대입하면 .778, 자아존중감의 표준화요인부하량 전체 합은 3.461, 표준화요인부하량 전체 합의 제곱은 11.979, 측정오차분산의 합은 1.14를 보여 공식으로 대입하면 .913, 부모효능감의 표준화요인부하량 전체 합은 4.399, 표준화요인부하량 전체 합의 제곱은 19.351, 측정오차분산의 합은 .202를 보여 공식으로 대입하면 .905, 결혼만족도의 표준화요인부하량 전체 합은 1.129, 표준화요인부하량 전체 합의 제곱은 1.275, 측정오차분산의 합은 .73를 보여 공식으로 대입하면 .636으로서 결혼만족도가 조금 낮고 그 외는 0.7 이상의 값을 보여, 개념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 수렴 타당성

수렴 타당성 평가는 표준오차추정구간과 평균분산추출치 값을 통해 평가한다. 평균분산추출치가 수렴 타당성을 평가하는 가장 엄격한 방법으로 보고 있어(Fornell & Larker, 1981), 평균분산추출치를 구하여 수렴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균분산추출치를 구하는 식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제곱합을 분모로 설정하고,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제곱합과 측정오차의 분산합의 합을 분자로 한 값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0.5 이상이면 무난하다. 판별타당성 검정을 위한 평균분산추출(AVE)값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평균분산추출(AVE)} = \frac{(\sum \text{표준화추정치}^2)}{(\sum \text{표준화추정치}^2) + \sum \text{측정오차}}$$

분석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표준화요인부하량 제공의 합은 2.557, 측정오차 분산의 합은 4.05를 보여 공식으로 대입하면 .387, 자아존중감의 표준화요인부하량 제공의 합은 2.399, 측정오차분산의 합은 1.14를 보여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678, 부모효능감의 표준화요인부하량 제공의 합은 2.898, 측정오차분산의 합 .202를 보여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4.918, 결혼만족도의 표준화요인부하량 제공의 합은 0.226, 측정오차분산의 합 .73를 보여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267의 값을 보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평균분산추출치가 조금 낮지만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각 변수들 간의 제공 값 중 가장 큰 값은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간의 상관 계수 값인 .463이므로, AVE 값이 .463의 제공 값인 .214 보다 크게 나타나면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변수들은 수렴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치가 .214보다 높아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잠재변수의 개념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

요인	Factor	표준화요인 적재량	Cronbach's α	개념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 AVE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1	.415	.841	.778	.387
	문화적응 스트레스2	.420			
	문화적응 스트레스3	.820			
	문화적응 스트레스4	.843			
	문화적응 스트레스5	.735			
	문화적응 스트레스7	.53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			
자아존중감2		.727			
자아존중감4		.661			
자아존중감6		.714			
자아존중감7		.672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2	.489	.845	.905	.589
	부모효능감3	.528			
	부모효능감4	.757			
	부모효능감5	.708			
	부모효능감6	.737			
	부모효능감7	.645			
	부모효능감8	.535			
	결혼만족도	배우자만족			
가정경제만족		.535			

* $p < .05$, ** $p < .01$, *** $p < .001$

5.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 문제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 모형을 각각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모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독립변인,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이 매개변인,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종속변인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1)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검증

본 연구모형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설명력 확인은 표준오차와 자유모수 추정치 및 다중상관자승치(SMC)를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먼저 확보되었다. 그러나 RMR, NFI, TLI, CFI, RMSEA 지수를 살펴서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는 <표 IV-12>과 같이 $\chi^2=1582.024(p<.001)$, $df=158$, $RMR=.068$, $TLI=.878$, $IFI=.898$, $CFI=.898$ 였으며, $RMSEA=.085$ 로 LO가 0.68, HL가 0.074로 나타나 모형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졌다.

<표 IV-12>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p	RMR	TLI	IFI	CFI	RMSEA
기준값	-	-	-	.05이하	.9이상	.9이상	.9이상	.1이하
측정값	1582.024	158	.000	.068	.878	.898	.898	.059
적합도			적합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적합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 검증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구조모형 적합도 판단 및 해석

구분		판단 기준	적합도 지수	해석
	χ^2	$p > .05$	1582.024	적합
절대 적합 지수	GFI	$\geq .9$.915	적합
	RMSEA	$\leq .1$.071	적합
	RMR	$\leq .5$.068	양호
	IFI	$\geq .9$.888	양호
충분 적합 지수	CFI	$\geq .9$.898	양호
	TLI	$\geq .9$.878	양호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의 자유모수 추정치<표 IV-14>,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beta=.297, p<.001$),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beta=.127, p<.05$),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beta=.270, p<.001$), 부모효능감과 결혼만족도($\beta=.344,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beta=.248, p<.001$)의 직접효과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자유모수 추정치

	변수	B	β	S.E.	C.R.	P
문화 적응 스트 레스	→ 문화적응 스트레스-07	1.000				
	→ 문화적응 스트레스-06	1.044	.653	.034	30.858	***
	→ 문화적응 스트레스-05	1.180	.685	.059	20.146	***
	→ 문화적응 스트레스-04	1.290	.759	.063	20.352	***
	→ 문화적응 스트레스-03	1.279	.735	.062	20.544	***
	→ 문화적응 스트레스-02	.813	.502	.048	17.007	***
	→ 문화적응 스트레스-01	.0765	.483	.046	16.496	***
자아 존중감	→ 자아존중감-01	1.000				
	→ 자아존중감-02	.983	.720	.039	25.438	***
	→ 자아존중감-04	.938	.659	.040	23.687	***
	→ 자아존중감-06	1.009	.723	.040	25.517	***
	→ 자아존중감-07	.898	.666	.038	23.916	***
부모 효능감	→ 부모효능감-07	1.000				
	→ 부모효능감-06	1.087	.760	.039	27.727	***
	→ 부모효능감-05	1.112	.777	.039	28.180	***
	→ 부모효능감-04	.901	.549	.044	20.603	***
	→ 부모효능감-03	.883	.628	.038	23.523	***
	→ 부모효능감-02	.978	.609	.043	22.787	***
결혼 만족도	→ 가정경제만족도	1.000				
	→ 배우자만족도	1.645	.586	.212	7.7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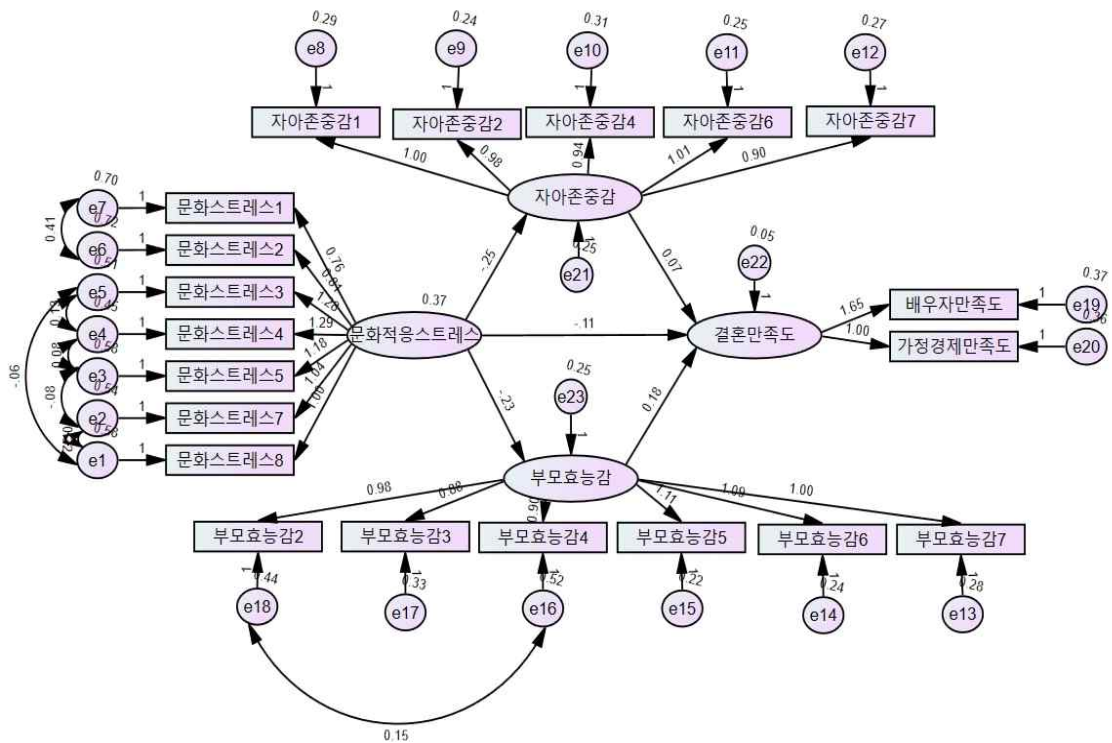
<표 IV-15> 직접효과

변수(경로)	B	β	S.E.	C.R.	P
문화적응 스트레스→자아존중감	-.254	-.297	.27	-9.577	***
자아존중감→결혼만족도	.066	.127	.022	2.987	**
문화적응 스트레스→부모효능감	-.232	-.270	.026	-8.905	***
부모효능감→결혼만족도	.176	.344	.027	6.621	***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109	-.248	.022	-4.986	***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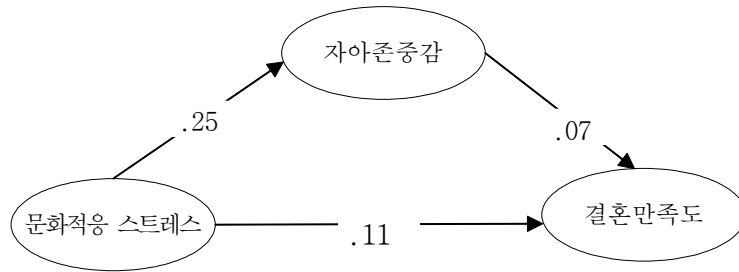
2)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간접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4-16>과 같다. 효과분해는 잠재변수의 비표준화계수(B) 값으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간접효과를 파악한다. 매개효과 분석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IV-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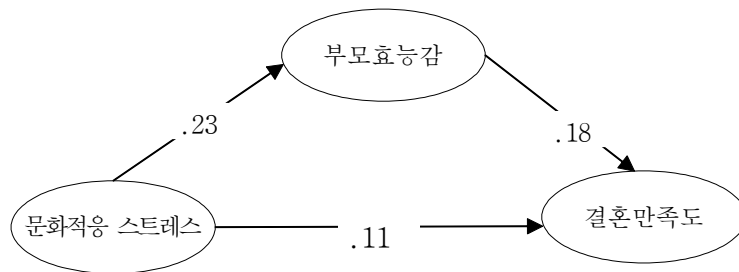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모형 [그림 IV-2]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결과를 도식으로 표시하면 [그림 IV-3], [그림 IV-4]과 같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도식 [그림 IV-3]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도식 [그림 IV-4]

3) 간접효과 및 총효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직접효과($\beta = -.11, p < .001$)가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beta = -.25, p < .001$)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에 직접효과($\beta = .07, p < .01$)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은 간접효과($\beta = -.0175, p < .01$) 및 총효과($\beta = -.128, p < .01$)를 보여주고 있다. 총효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플러스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곱한 결과이다. 이를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총효과}(-.128) &= [\text{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11)] + \\ & [\text{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25) \times \\ & \text{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07)] \end{aligned}$$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직접효과($\beta = -.11$, $p < .001$)가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에 직접효과($\beta = -.23$, $p < .001$)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효능감은 결혼만족도에 직접효과($\beta = .18$, $p < .01$)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부모효능감은 간접효과($\beta = 0.0414$, $p < .01$) 및 총효과($\beta = .0686$, $p < .01$)를 보여주고 있다. 총효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플러스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부모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곱한 결과이다. 이를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총효과}(.1514) &= [\text{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11)] + \\ & [\text{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23) \times \\ & \text{부모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18)] \end{aligned}$$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Amos에서는 총 간접효과만 알 수 있고 개별 간접효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간접효과는 phantom variable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자아존중감을 거쳐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p2, 부모효능감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p4로 설정하였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 후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6>와 같다.

<표 IV-16>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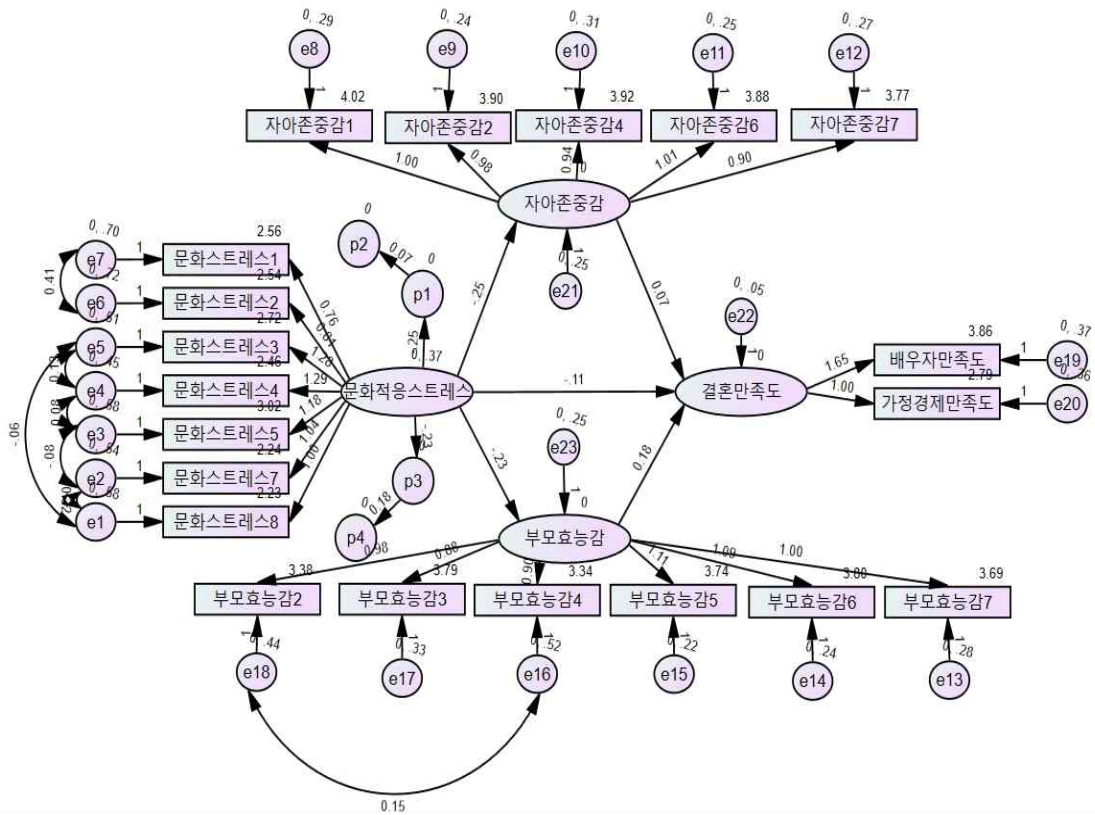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11***		
문화적응 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25***		
문화적응 스트레스 → 부모효능감	-.23***		
자아존중감 → 결혼만족도	.07**		
부모효능감 → 결혼만족도	.18**		
문화적응 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결혼만족도	-.11***	-.017	-.128***
문화적응 스트레스 → 부모효능감 → 결혼만족도	-.11***	-.041	.151***

4)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랩 평균 에러 값 추출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의 반복 추출과정을 5000회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에서 p2의 간접효과는 p.005, p4의 간접효과는 p.000으로서 p2와 p4의 팬텀 변수에 나타난 유의확률이 모두 $p < .05$ 수준을 이루고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IV-17>.

<표 IV-17>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Estimate	S.E.	p
문화적응 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결혼만족도	-.017	.007	.005
문화적응 스트레스 → 부모효능감 → 결혼만족도	-.041	.009	.000



팬텀변수 효과분해 [그림 IV-5]

5) 문화적응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통제변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통제변수를 투입한 결과, 의사소통($\beta=-.228$)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주는 영향이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국($\beta=-.113$), 건강상태($\beta=-.112$), 학력($\beta=-.0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beta=-.009$), 필리핀($\beta=-.012$), 일본($\beta=-.027$), 기타 국가 출신 어머니($\beta=-.002$) 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8> 문화적응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통제 변수

변수	B	β	S.E.	C.R.	P
연령	.014	.009	.038	0.359	.720
학력	-.052	-.055	.025	-2.115	*
건강상태	-.109	-.112	.023	-4.837	***
의사소통	-.288	-.228	.029	-9.884	***
중국	-.169	-.113	.042	-3.970	***
필리핀	.029	.012	.061	0.480	.631
일본	-.078	-.027	.080	-0.978	.328
기타	-.005	-.002	.051	-0.089	.929

6. 연구가설검정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가설은 매개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4-21>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파악하였다($B = -.248, p < .001$).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연구가설 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파악하였다($B = -.297, p < .001$). 따라서 <연구가설 2>은 채택되었다.

셋째, <연구가설 3>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분석하였다($B = .127, p < .001$). 따라서 <연구가설 3>은 채택되었다.

넷째, <연구가설 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beta = -.128, p < .001$)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해당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연구가설 4>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연구가설 5>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파악하였다($B = -.270, p < .001$). 따라서 <연구가설 5>

는 채택되었다.

여섯째, <연구가설 6>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파악하였다($\beta=.344, p<.001$). 따라서 <연구가설 6>은 채택되었다.

일곱째, <연구가설 7>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beta=.151, p<.001$)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해당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연구가설 7>은 채택되었다.

<표 IV-19> 가설검증 결과 요약

구분	내용	채택 여부
연구가설 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을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3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있을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5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낮을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6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7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있을 것이다.	채택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2020년도 조사의 다문화 청소년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응답한 자료를 대상으로 2,249명의 모집단에서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와 자녀가 있는 대상자를 케이스 선택하여 최종 1,781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전문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조사 도구는 태블릿PC(TAPI)를 이용하였다. 외국출생 학부모(어머니)의 경우 한국어 및 총 9개 외국어(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제시)로 번역된 설문지가 제공되었으며, 외국출생 학부모(어머니)가 언어를 선택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최종결과공표(기초분석보고서)는 2021년 12월 31일, 최초 데이터 공개는 2022년 12월 20일에 개방되었다. 이를 통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40세~56세’보다 ‘25세~40세 미만’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은 ‘고졸’ 807명(45.3%)이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졸 이하’ 523명(29.4%), ‘대졸’ 451명(23.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을 보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다’ 962명(54.0%)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542명(30.4%), ‘매우 좋다’ 188명(10.6%), ‘나쁜 편이다’ 84명(4.7%), ‘매우 나쁘다’ 5명(0.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잘 되는 편이다’ 1,101명(61.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좋다’ 577명(32.4%), ‘잘 안되는 편이다’ 100명(5.6%), ‘전혀 안 된다’ 3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잘 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출신국에서는 ‘베트남’ 608명(34.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국(한족, 기타 민족)’ 330명(18.5%), ‘중국(조선족)’ 265명(14.7%), ‘기타’ 245명(14.3%), ‘필리핀’ 177명(9.9%), ‘태국’ 40명(2.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기술통계의 평균값을 볼 때,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3.6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3.64)과 부모효능감(3.64)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2.79), 문화적응 스트레스(2.58)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분포를 알수 있는 왜도는 .055~-.512, 첨도는 -.898~1.021로서 절대값이 각각 2와 7 미만으로 정규성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검증에서 연령($t=0.312, p>.05$)에서 ‘25세~40세 미만’ 집단과 ‘41세~56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연령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 집단($F=8.541, p<.001$), 전반적인 건강상태($F=10.987, p<.001$), 자녀와의 의사소통($F=64.868, p<.001$), 어머니의 출신 국가($F=10.784, p<.001$)에서는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는 연령을 제외한 학력, 전반적인 건강 상태,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의 출신 국가 등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차이검증은 다음과 같다. 연령($t=0.088, p>.05$)에서 ‘25세~40세 미만’ 집단과 ‘41세~56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연령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 집단($F=6.709, p<.001$), 전반적인 건강상태($F=29.759, p<.001$), 자녀와의 의사소통($F=57.092, p<.001$), 어머니의 출신 국가($F=10.784, p<.001$)에서는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에는 연령을 제외한 학력, 전반적인 건강상태,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의 출신 국가 등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부모효능감의 차이검증은 다음과 같다. 연령($t=15.262, p>.01$)에서 ‘25세~40세 미만’ 집단과 ‘41세~56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연령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 집단($F=15.265, p<.001$), 전반적인 건강상태($F=40.087, p<.001$), 자녀와의 의사소통($F=82.939, p<.001$)은 집단 간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 국가($F=3.812, p>.05$)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에는 연령과 어머니의 출신 국가를 제외한 학력, 전반적인 건강상태,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집단 간 유의미한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넷째, 결혼만족도의 차이검증은 다음과 같다. 연령($t=.974, p>.05$)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F=5.468, p<.05$), 전반적인 건강상태($F=59.783, p<.001$), 자녀와의 의사소통($F=32.499, p<.001$)은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 국가($F=1.943, p>.05$)는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연령과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학력, 전반적인 건강상태,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집단 간 유의미한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r=-0.188, p<.01$), 자아존중감($r=-0.221, p<.01$), 부모효능감($r=-0.261, p<.01$)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자아존중감 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부모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은 결혼만족도와 정적(+) 방향을 이루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의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chi^2=1582.024, df=158, p=.000, RMR=.068, TLI=.878, IFI=.898, CFI=.898$ 였으며, RMSEA=.085로 LO가 0.68, HL가 0.074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 효과($\beta p<.001$)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부적 효과($\beta =-.297, p<.001$)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beta=.127, p<.05$)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에 유의미한 부적 효과($\beta =-.270, p<.001$)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beta=.344,$

p<.001)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섯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직접효과($\beta=-.11$, $p<.001$)가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beta=-.25$, $p<.001$)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에 직접효과($\beta=.07$, $p<.01$)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은 간접효과($\beta=-.017$, $p<.01$) 및 총효과($\beta=-.128$, $p<.01$)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지만 자아존중감이 높다면 결혼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곱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직접효과($\beta=-.11$, $p<.001$)가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에 직접효과($\beta=-.23$, $p<.001$)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효능감은 결혼만족도에 직접효과($\beta=.18$, $p<.01$)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부모효능감은 간접효과($\beta=.041$, $p<.01$) 및 총효과($\beta=.151$, $p<.001$)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지만 부모효능감이 높다면 결혼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랩의 반복 추출과정을 5,000회 실시하여 부트스트랩 평균 에러 값을 추출하여 검증한다.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에서 p2의 간접효과는 p.01, p4의 간접효과는 p.001로서 p2와 p4의 팬텀변수에 나타난 유의확률이 모두 $p<.01$ 수준을 이루고 있어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 효과($\beta = -.248, p < .001$)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화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김오남, 2005),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부부 갈등은 높아지고 이로 인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연수, 2007),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남인숙, 안숙희, 2011; 이혜경, 전해인, 2013)와 일치하여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었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의 만족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이혜경, 전해인, 2013),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문화 환경, 관습, 새로운 언어 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충격, 차별,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 등으로 좌절과 불안을 경험하며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정숙, 2010)와 맥락이 같다. 그리고 임파워먼트가 강화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문화충격, 사회적 편견, 적대감)가 감소되고 결혼만족도가 높아진 연구결과(이민자, 2019)와도 같은 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응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 대체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낮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으면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졌다. 다만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할 때,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이 외국출신자라고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것과 자신이 태어난 곳 및 사람들이 그림다는 것,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는 표현에 빈도분석을 통해 약 30%의 응답을 보인 것에 결혼만족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비록 남편과 자녀, 경제상태가 좋다고 인정하더라도 고향의 가족과 고향친구들이 그림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자주 본국에 방문할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주여성의 본국에 있는 부모, 형제자매, 친구들을 초청해서 향수를 지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부적 효과($\beta = -.297, p < .001$)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경로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Claudat et al., 2016),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진 결혼이주여성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김동건 외, 2020)와 일치하여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관계의 소원 등 대인관계의 질이 저하될 때 유발되어 자아존중감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한광현, 강상경, 202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진 결혼이주여성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박순용 외, 2012; 김동건 외, 2020)와도 일맥상통하였다.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김지혜, 2019)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안윤숙, 김홍주, 2014; 신지현, 강현아, 2018)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beta=.127$, $p<.05$)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은 심리·정서적인 주요 요인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양순미, 정현숙, 2006),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 해결에 있어서 유연하게 작용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박정숙, 2007; 문무현, 한진환, 2018)와 일치하여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기혼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더 큰 만족의 결혼생활이 지속할 수 있고(이은영, 2009), 자아존중감은 결혼이주여성인 아내의 전반적인 결혼생활 적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양순미, 정현숙, 2006)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의 정신건강은 물론, 가족 구성원과 사회에서 만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 결혼만족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다는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를 높여주는 긍정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은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빈도분석을 통해 응답한 비율이 중간 이상에서 90%를 보여주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에 유의미한 부적 효과($\beta = -.270, p < .001$)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며(유지희, 2021),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부모효능감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이채원, 2012; 오은정, 오미정, 2018; 김소희, 노원구, 2018; 연은모, 최효식, 2019)와 일치하여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의 관계를 다룬 연구(김소희, 노원구, 2018)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등 문화적 요인도 부모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유수정 외, 2021), 캐나다에 초기 사춘기 아이를 둔 이민자 중국인 부모 17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캐나다 문화를 더 잘 받아들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지고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Costigan & Koryzma, 2011)도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와 일치한 것을 보여주었다.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문화 어머니의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이래현, 장혜림, 2019),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활동에 관심이 적어지게 되고 이는 부모효능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자녀의 학교 및 사회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임양미, 2019)와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문화적응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 불안감이 높아지고 부모효능감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전보영, 2012)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간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beta = .344, p < .001$)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낮은 부모효능감은 부부관계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 불만족으로 이어져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리며(이영진, 장은미, 2018), 또한 자녀 양육부담과 부부사이의 갈등, 그리고 부부 서로에게 집중되고 배려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 등이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며(조성희, 박소영, 2010), 부모효능감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어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지연, 이지민, 2011)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효능감은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유도하고, 자녀의 심리적 안정,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양정우, 어용숙, 2019), 부모효능감이 현저히 낮은 부부는 부부관계에 대한

우울, 불안감, 불만족으로 이어져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허은경, 김영희, 2016; 이영진, 장은미, 2018)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모효능감은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김지현, 이지민, 2011), 부부의 부모효능감은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한혜림, 이지민, 2019)를 지지한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신념을 갖기 때문에 부모효능감은 높아지고 더불어 결혼만족도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보금로, 2022)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대상자는 자신이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며,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섯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영향 관계에서 매개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박용순 외, 2012)와 일치하여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를 연결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고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일곱째, 매개변수인 부모효능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연결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클수록 부모효능감은 줄어들고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보금로, 2022)와 일치된 맥락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영향 관계에서 매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낮아진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2.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을 높여 그들이 새로운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결혼만족도를 높여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낮아진 결혼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인식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의 태어나서 자란 모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가족의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며, 결혼이주여성만이 한국의 언어, 역사와 문화를 습득하여 동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과 서로의 문화를 배워가는 쌍방향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와 가족 및 사회에서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변 사람과 안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여 자기 안에 어떠한 부정적인 마음이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지를 찾아내어 가족 간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복지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또한 가족문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결혼만족도의 향상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가족 복지적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 차이, 생활환경과 사고방식의 차이 등 다양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의사소통의 문제는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가족 구성원들과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무엇보다 한국의 가부장적인 생활문화로 인해 문화 간 갈등이 깊어 가고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한국문화환경 적응에 성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먼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경험이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나 한국인 부부들과 함께 하는 자조모임은 국제결혼을 통을 통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자아존중감 향상에 견인역할을 할 것이다. 즉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보다는 쌍방적인 지지에서 더 깊은 결속력이 나타날 수 있기에 부부나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결혼이주여성 부부와 한국 부부가 함께 경험을 나누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각 기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결혼이주 여성은 국제결혼을 계기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낮은 문화 환경과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가족 및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대화 기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에게만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짧은 시간 내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 교류 없이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한국인 남성의 생활력에 대한 기대로 결혼을 결정하지만, 실제적인 경제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 생활문화 차이, 경제적인 현실의 차이, 가부장적 태도, 가사분담 문제, 모국으로 경제적 지원 등 결혼생활에 많은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아존중감이 저하 된다.

그러므로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일자리를 얻고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자신감을 제고하고, 가족 외에도 친구 및 이웃 등 사회적 지지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취업 지원 교육, 취업 정보 제공 및 정보 접근성 향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상호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가족 및 사회구성원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함양하는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이 개발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사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부정적인 요인인 차별과 편견을 한국문화 동화로의 정책 즉, 한국문화환경 습득과 한국어 유창성, 한국 자녀 양육방식, 한국 역사의식 함양을 강요하는 방법이 아닌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이주 여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아존중감을 높여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 여겨진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응력을 높일 수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확신으로 가족과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적합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개발하고, 자아존중감 실태조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체동작 계슈탈트 예술치료(안미연, 2015), 미술치료(가슬, 2013), 집단모래상자놀이(이향순, 2012), 독서치료 프로그램(신필숙, 2015)이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을 선별하여 집단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언어습득의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에 저하 되어 있었으나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자아를 찾아볼 수 있고 자신의 내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족 울타리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봄으로써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가족 안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가족 구성원들과 상호작용방법을 익혀 결혼생활에서의 행복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교육’, ‘가족상담’, ‘다문화이해교육·홍보사업’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의왕시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서울 강남 심리치료센터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재능기부’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울산남구 가족센터에 다양한 문화 인식개선 및 상호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효과성 도모 및 지역사회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대구 서구 가족센터의 ‘나의 색깔을 찾아서’, 안산시 가족센터의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등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정책으로 사료된다.

현재 진행 중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전국의 다문화가족센터 등 많은 기관에서 더 활성화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낮아진 결혼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은 낮은 문화적응과 자녀 양육 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해 그들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모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모효능감을 높이고 한국어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실생활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켜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동네 수준의 문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아내와 어머니, 며느리로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자녀 양육의 경험과 방식은 물론이고 이웃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그들이 거주하는 동네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을 높이기 위하여 빈곤한 나라에서 이주해 왔다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만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같은 인권과 사회권을 가진 한국 시민으로 인식하고, 사회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현지 사전교육은 간단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생활 소개로 이루어져, 한국에서의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부모효능감을 높이기 위하여 배우자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서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고, 자녀양육에 지원 서비스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과 정부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은 결혼만족도와 관계성이 높다. 특히 낮은 양육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결혼과 동시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임신 및 출산행위를 하게 된다. 새로운 문화적응에 앞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와 주변 도움이 부족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모효능감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준비부터 단계별 양육에 대한 기본교육 지원과 양육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그 외 지

역사회복지기관과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여 결혼이주여성 자녀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격려는 자녀 양육과 자녀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되어 가족 건강성과 부모효능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만약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발달과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 확립 및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의 소통은 엄마로서의 부모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가 일반가정의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 보다 낮은 결과 치로 나타났다(김은영, 2009). 이는 어머니의 양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의 문화와 풍습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 가족의 지지와 주변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정보나 도움과 같은 환경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올바른 양육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활동 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생활양식,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지를 받는다는 인식으로 확장되어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김민경, 김경은, 2009)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자기탄력성 자부심, 낙관적 사고, 문제해결력 등 내적 자원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자기효능감을 높이면 부모효능감 역시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의 동등한 역할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특히 배우자 지원이 부모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하여 상호 존중과 지지의 기초 아래 자녀를 더 잘 양육함으로써 부모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센터나 자녀가 있는 학교에 부모교육 관련 상담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데 부모 상담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학교나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부모상담 내용에 따라 부모효능감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노혜란, 김상옥, 2020)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부모효능감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수반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부모효능감은 높아지고 결혼만족도나 삶의 만족 역시 높아질 것이므로 부부의 동등한 역할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특히, 배우자와 가족의 지원이 부모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하여 상호 존중과 지지의 기초 아래 자녀를 더 잘 양육하고 부모효능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의왕시 가족센터에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 향상 및 부모역할 확립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가족센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울산 중구 가족센터에서 생애주기 별 부모역할 수행에 대해 보다 나은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 간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역할지원’ 프로그램 등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 향상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 가족센터의 ‘이중 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보령시 가족센터에서 학령기부모역할 지원을 위한 ‘엄마아빠 마음공부’, 경기도 안산시 가족센터의 ‘국가별 자조모임’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킨다면 결혼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은 높여야 한다는 결과를 밝히고, 특히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에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또한 현장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질적 연구와 양적 사례연구가 확대되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결혼이주여성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남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남편을 대상으로 부부 동시에 결혼만족도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중 문화충돌의 원인이 되는 자국문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즉, 서로 다른 문화적응과 이해는 교차문화 이해로부터 출발하고, 모국 문화에 대한 문화비평을 전제로 하여야만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과 이해가 빨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 별거,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향후 연구도 절실히 필요하며,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여 결혼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진웅. (2016). 한국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비교: 통섭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체성의 동학. **다문화교육연구**, 9(1), 1-2.
DOI : 10.14328/MES.2016.3.31.01
- 고기숙, 정미경. (2012).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254-279.
DOI : 10.14328/MES.2016.3.31.01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화 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008), 1-26.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권명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권복순, 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UCI : G704-000330.2006.58.3.005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DOI : 10.20970/kasw.2009.61.2.001
- 권복순. (2010). 인간중심 표현예술치료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학회**, 17(6), 1411-1430.
DOI : 10.35594/kata.2010.17.6.006
- 김동건, 조병준, 이문숙. (2020). 한국전통무용 참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2), 171-179. DOI : 10.9708/jksci.2020.25.02.171
- 김미영. (2018).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를 위한 가정 생활교육프로그램개발**. [박사학위논문, 서울한영대학교].
- 김상조. (2018). 미주 한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활용: 미국 빈민촌 흑인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3), 885-900.

DOI : 10.22143/HSS21.9.3.65

김성찬, 김유정.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43, 319-344. UCI : G704-001305.2011..43.005

김소희, 노윤구. (2018).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4(2), 174-184.

DOI : 10.4069/kjwhn.2018.24.2.174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2013).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1), 221-235.

DOI : 10.5392/JKCA.2013.13.11.221

김연수, 박지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30), 269-297. DOI : 10.16975/kjfsw.2010..30.010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1), 217-252. DOI : 10.16975/kjfsw.2007..21.008

김영순, 조영철, 김정희, 정지현, 박봉수, 오영훈, 손영화, 박종도, 이미정, 정경희, 박미숙. (2019).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 . **북코리아**.

김오남. (2005).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김은경. (2008).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83-94.

UCI : G704-000320.2008.26.6.007

김은정, 서민정. (2013). 여가활동유형이 여가만족과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2(3), 65-91.

UCI : G704-SER000001338.2013.15.3.002

김이선. (2007).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7, 9-32.

김인아. (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김정식.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결정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부부적응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김정화, 김남숙. (2019).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0(1), 129-142. DOI : 10.22143/HSS21.10.1.10

김지원. (2016). **여성결혼이민자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지현, 김보미. (2017).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디지털융복합 연구**, 15(8), 277-287. DOI : 10.14400/JDC.2017.15.8.277
- 김지현, 오진아, 윤채민, 이자형.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중심으로. **부모건강학회지**, 12(1), 46-60.
- 김지현, 이지민 (201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 만족도와 결혼만족도의 구조모형검증. **아동복지연구**, 9(3), 19-38.
UCI : G704-SER000010271.2011.9.3.007
- 김지혜.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3), 115-124.
- 김진희, 박서진, 이진아. (2018).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융합학회지**, 9(9), 407-420.
DOI : 10.15207/JKCS.2018.9.9.407
- 김창기, 이진성. (20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2), 296-307. DOI : 10.5392/JKCA.2013.13.02.296
- 김평화.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 25-53. DOI : 10.21509/KJYS.2020.01.27.01.25
- 김현경.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 격차 인식,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29-254.
UCI : G704-000666.2009.14.5.004
- 김혜미, 권태연. (2021).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38(2), 29-42. DOI : 10.14367/kjhep.2021.38.2.29
- 김효민. (2010).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중앙대학교 대학원].
- 나경희, 이선. (2016).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이중언어강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분석. **외국어교육**, 23(1), 289-309.
UCI : G704-000287.2016.23.1.012
- 나남숙, 이인수. (2017).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헌신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적용. **한국가족치료학회**, 25(1), 115-135.
- 남인숙, 안숙희. (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99-108.

UCI : G704-001641.2011.17.2.006

노혜란, 김상옥. (2020). 부모상담이 양육효능감과 양육죄책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유아교육 보건복지연구**, 24(2), 57-78. DOI : 10.22590/ecee.2020.24.2.57

류한수. (2016).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345-356. DOI : 10.5392/JKCA.2016.16.08.345

문무현, 한진환. (2018).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가족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6(7), 165-175.

DOI : 10.14400/JDC.2018.16.7.165

박동진, 이지연.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6(3), 73-92.

DOI : 10.34244/JFOYS.2019.16.3.73

박란이. (2016).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독교사회복지 역할 연구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

박미경, 문지현. (2019).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12), 477-486. DOI : 10.15207/JKCS.2019.10.12.477

박미란, 이지연. (2007). 또래애착이 초기 장소년기 우정관계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5(2), 81-95.

박민서.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5), 393-402. UCI : G704-001475.2011.11.5.001

박범철. (2015). 다문화 감수성에 기반을 둔 간 문화적 글쓰기 프로그램의 실제: 2015 년 경문고 따봉(따뜻한 봉사활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 66, 399-436. UCI : G704-000774.2015..66.008

박선미, 김영아, 정향인. (2019).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와 보건연구**, 24(1), 31-39.

<https://doi.org/10.33527/nhi2019.24.1.31>

박선태. (2012). **결혼이주여성의 역할부담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Double ABCX 모델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소은, 이채원. (201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359-384.

DOI: 10.16975/kjfs.2012.. 38.012

박용순, 송진영, 이순자.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 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6(2), 88-110. DOI : 10.22446/mpisk.2012.6.2.004
-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 17(2), 75-105. UCI : G704-000099.2007.17.2.003
-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UCI : G704-000320.2007.25.6.010
- 박주희, 남지숙.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특성 및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270-282.
DOI : 10.5392/JKCA.2013.13.06.270
- 배병렬. (2022). Amos 28에 의한 조절효과, 매개효과 및 PROCESS 모델 분석. **교보문고**.
- 보금로, 장영은. (202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2(19), 837-848. DOI : 10.22251/jlcci.2022.22.19.837
- 봉초운, 정운화, 홍세희. (2018).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9(3), 41-69.
DOI : 10.14816/sky.2018.29.3.41
- 서선숙, 백진아. (2017).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8), 301-310.
DOI : 10.14400/JDC.2017.15.8.301
- 서재복. (202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이 자녀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민정책학회보**, 4(2), 77-90.
DOI : 10.46894/kaipa.2021.4.2.5
- 석원정. (2008). 다문화 존재들과 동등하게 소통하고 수용할 수 있는 토양 건설이 필요한 때. **한국다문화학회 창립총회 기념학술대회, 2008**, 50-59.
- 설동훈. (2006). 한국의 결혼이민자가족: 현황과 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회 문집**, 1-20.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1096918>
- 소라미. (2009).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한국 법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16(2), 43-74. UCI : G704-SER000000827.2009.16.2.002
- 손유자, 조춘범, 김정화. (2018). 다문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에 일상생활 적

- 응에 미치는 영향과 모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다문화와 평화**, 12(1), 80-106. UCI I410-ECN-0102-2018-300-004057943
- 송유자. (2017). **다문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일상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모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대학원].
- 송미영, 박경희. (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복지학회지**, 1(26), 53-70.
UCI : G704-001921.2008..26.001
- 송순택.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기능, 학교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 송지현, 이태영. (2010).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164-192. DOI : 10.15709/hswr.2010.30.2.164
- 송태연. (2017). **결혼이주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허용성 및 자기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 신준옥. (2016).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다문화와 평화**, 10(1), 75-196.
DOI : 10.22446/mnpisk.2016.10.1.008
- 신지현, 강현아. (2018).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1(44), 1-22.
DOI : 10.20993/jSSW.44.1
- 신현경. (2009).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회피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와 평화**, 3(1), 147-164.
DOI : 10.22446/mnpisk.2009.3.1.006
- 신혜정, 노충래, 허성희, 김정화. (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7(3), 5-29.
DOI : 10.20970/kasw.2015.67.3.001
- 안윤숙, 김홍주. (2014).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비행경험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15(1), 453-479.
DOI : 10.20970/kasw.2015.67.3.001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안현숙. (2011). **부부공평성, 부부갈등대처방식, 의사소통기술, 결혼만족도의 관계 : 한국인부부와 국제결혼부부의 비교**.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정보대학교 대학원].

- 양순미, 정현숙. (2006).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 11(3), 245. UCI : G704-001334.2006.11.3.010
- 양점도, 김춘택. (2006). 농촌 외국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복지행정 논총**, 16(1), 1-20. <http://www.riss.kr/link?id=A103182007>
- 양정우, 어용숙. (2019).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지**, 1(31), 1296-1307.
DOI : 10.13000/JFMSE.2019.10.31.5.1296
- 여성가족부.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3.
- 여성가족부. (2019).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 202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가족부**.
-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진로 관련행동 진로장벽인식 간 관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121-140. DOI : 10.22251/jlcci.2019.19.10.121
- 오르트나상. (2020).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와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개신대학교 대학원].
- 오은정, 오미정. (2018).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2(2), 96-105.
DOI : 10.22251/jlcci.2019.19.10.121
- 오재연.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출신국적별 외국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삶의 질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비교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 32-57.
UCI : G704-002073.2014.18.1.009
- 오희순. (2016). **한국에서의 인정차별에 대한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원종숙, 김성길. (2021). 다문화 이주여성의 배움경험으로서 改造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미래교육연구**, 11(3), 1-28. DOI : 10.26734/JFE.2021.11.03.01
- 유수정, 송현주, 박다운, 황연재. (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3(2), 69-92. DOI : 10.51155/KAMW.2021.3.2.69
- 유승희. (2020).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문화정체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4(1), 134-158. DOI : 10.22446/mpisk.2020.14.1.007

- 유지희.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 한국어 수준과 양육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1(53), 297-325. DOI : 10.20993/jSSW.53.12
- 윤기봉, 지연경.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남편의 양육참여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자기-상대방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지**, 24(3), 133-153. <http://dx.doi.org/10.15284/kjhd.2017.24.3.133>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2010), 37-74.
UCI : G704-000946.2010..33.005
- 이경숙. (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자녀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박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대학원].
- 이도경. (2020). 周易 色象卦의吉凶과 命理 行運論,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 대학원].
- 이동은. (2016).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특징연구.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이래혁, 장혜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6, 65-95. DOI : 10.24300/jkscw.2019.06.66.65
- 이명은, 강택구. (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수용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간 감수성을 매개변수로. **인문사회**21, 11(2), 1297-1312.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1.2.90>
- 이민자. (2019).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대학원].
- 이상식.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출산 형태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19-1.
- 이성순. (2008).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에 관한 고찰.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 방안마련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2008, 347-357.
- 이수연.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기유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6(2), 45-62.
UCI : G704-002141.2009.6.2.002
- 이순자, 박용순, 송진영.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4), 1-25.
UCI : G704-001638.2014.30.4.013

- 이순자.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관계성 연구 : 부부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조절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승희, 박응임. (2016). 여성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2), 143-155. UCI : G704-000080.2016.37.2.008
- 이아민, 이채원. (2017). 지역사회참여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5, 237-263. DOI : 10.16975/kjfsw.2017..55.008
- 이영분, 이유경.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분화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6, 63-86. DOI : 10.16975/kjfsw.2009..26.003
- 이영설. (202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문화간 감수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금강대학교 대학원].
- 이영진, 장은미.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 결혼만족도, 부부 갈등과 아버지 행복감의 관계. **열린부모교육학회**, 10(3), 101-122.
- 이유경.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은영. (2009). 학업 우수 청소년의 부모애착,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포부 관계 모형의 남녀비교, **인간이해**, 30(1), 43-59.
UCI I410-ECN-0102-2012-370-002988829
- 이정숙.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지현, 진수진, 주현정, 조연실. (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부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87-98.
- 이진경. (2021).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 메타분석**.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 이진숙.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6), 919-932. UCI : G704-001335.2010.19.6.018
- 이창운. (2017).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중원대학교 대학원].
- 이해주, 오성배. (201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거주기간별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교육지원 방안 탐색. **콘텐츠연구**, 31, 111-139.

DOI : 10.15400/mccs.2019.08.31.111

- 이현우. (2011).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조절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대학원].
- 이혜경, 전해인. (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4), 413-432. DOI : 10.13049/kfwa.2013.18.4.413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UCI : G704-000152.2005.28.1.005
- 임양미.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참여와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8(6), 615-62. DOI : 10.5934/kjhe.2019.28.6.615
- 임양미. (2020). 결혼이주여성의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 및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 종단적 상호영양 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1-27.
- 장선아. (2021).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교 대학원].
- 장성민, 박진희. (2020).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초등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구안.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논문지**, 14(8), 487-499.
DOI : 10.21184/jkeia.2020.12.14.8.487
- 장영신. (2018). **액션러닝을 활용한 다문화 상담자 교육프로그램이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과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수행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장영신. (2018). **액션러닝을 활용한 다문화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과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수행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전경숙. (2017).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관련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6(4), 402-411.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4.402>
- 전보영.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와 부모역할 효능감의 관계. **열린부모교육학외**, 4(2), 15-31. UCI I410-ECN-0102-2016-370-000417065
- 전현수. (2010).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자아존중감이 자기구실 만듦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도희. (2012).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15(2), 31-57. UCI : G704-SER000012159.2012.15.2.011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UCI : G704-001037.2004.23.1.002
- 정현미. (2010).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1(1), 71-102.
- 정혜정. (2018). **무용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방법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정희원. (202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조성희, 박소영. (2010). 여성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 149-174. DOI : 10.16975/kjfs.w.2010..29.006
- 조원휘. (2019). **이주 여성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과 대만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조진숙, 황재원. (2017).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경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2), 931-954. DOI : 10.22143/HSS21.8.2.49
- 주소희, 이경은.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서적 고립 및 소외와의 관련성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7(1), 45-64. UCI : G704-SER000000901.2014.7.1.001
- 채정민. (200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기제와 적응행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천영희. (2019).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도,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 최가희.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경제적지위,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모효능감에 대한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1025-1045. DOI : 10.22251/jlcci.2020.20.8.1025
- 최승은. (2019).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의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1(2), 77-109. DOI : 10.33949/tws.2019.101.2.003
- 최정자. (2010).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대학원].
- 최정혜. (201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및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4), 153-171. UCI : G704-001932.2012.17.4.010
- 최정희. (2018).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이

- 직업정체감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5), 99-104.
DOI : 10.15207/JKCS.2018.9.5.099
- 최형성.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중국 필리핀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7), 1-13.
UCI I410-ECN-0102-2012-360-002316265
- 통계청.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구동태통계연보.
- 하주영, 김운지. (2013).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4), 254-264. UCI : G704-001641.2013.19.4.010
- 한경님.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71-190. UCI : G704-000724.2012..73.012
- 한광현, 강상경.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스트레스 과정 모델 검증.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7(1), 231-257. DOI : 10.24301/MHSW.2019.03.47.1.231
- 한광현, 강상경. (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중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1), 5-39.
UCI I410-ECN-0102-2012-360-002316265
- 한혜림, 이지민.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APIM)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3(2), 95-119. DOI : 10.5718/kcep.2019.13.2.95
- 함진옥, 조인주. (2012).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사회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4(3), 65-97.
DOI : 10.21478/family.24.3.201209.003
- 함필주, 강기정. (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및 취업준비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3), 525-541.
UCI : G704-001932.2015.20.3.005
- 허은경, 김영희. (2016).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결혼생활만족도와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가족복지학회**, 21(3), 417-441.
DOI : 10.13049/kfwa.2016.21.3.3
- 홍미기. (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연구 :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9), 1175-1184.
<https://doi.org/10.1037/0003-066X.44.9.1175>
- Bandura, A., Caprara, G. V., Barbaranelli, Regalia, C., & Scabini, E. (2011). Impact of Family Efficacy Beliefs on Quality of Family Functioning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60*(3), 421-448.
<https://doi.org/10.1111/j.1464-0597.2010.00442.x>
-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42*(2), 745-747.
<https://doi.org/10.2466/pr0.1978.42.3.745>
- Baumeister, R. F. (2005). Self-concept, Self-esteem, and Identity. In V. Derlega, B. Winstead, & W. Jones(eds.), *Personality: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3*, 246-280.
- Baumeister, R. F., & Heatherton, T. F. (1996). Self-regulation Failure: *An Overview. Psychological inquiry*, *7*(1), 1-15.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701_1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https://doi.org/10.1111/1529-1006.01431>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In Proceedings of the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1), 201-234.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erry, J. W. (2002).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Acculturation -Advanced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Chun,K., Organista, P., & Marin, G. (ed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291–326.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https://doi.org/10.2307/2546607>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8).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https://doi.org/10.2307/2546607>
- Bregant, T., Torosyan, M., Shriwise, A., Balwicki, L., & Tulchinsky, T. (2016). Migrant and Minority Health in Europe: The Way Forward. *Public Health Reviews, 37*(1), 1–8.
<https://doi.org/10.1186/s40985-016-0045-0>
-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21–430.
<https://doi.org/10.1037/0022-3514.64.3.421>
- Castles, Stephen., & Mark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Third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atherine, L. C., & Celine, M. K. (2011).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Among Immigrant Chinese Parents :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183–196.
<https://doi.org/10.1037/a0021696>
- Ceballo, R., & Hurd, N. (2008). Neighborhood Context, SES, and Parenting: Including a Focus on Acculturation Among Latina Mothers. *Appl. Dev. Sci, 12*(4), 176–180. <https://doi.org/10.1080/10888690802387997>
- Claudat, K., White, E. K., & Warren, C. S. (2016).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and Eating Pathology in Latina and Asian American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2*(1), 88–100.
<https://doi.org/10.1002/jclp.22234>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 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1–15.

- 18(1), 47-85. <https://doi.org/10.1006/drev.1997.0448>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49(1), 13-24.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0.00013.x>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WH.
- Costigan, C. L., & Koryzma, C. M. (2011).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Among Immigrant Chinese Parents: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183-196.
<https://doi.org/10.1037/a0021696>
- De Montingy, F., & Lacharite, C. (2005). Perceived Parental Efficac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9(4), 387-396.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4.03302.x>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2), 295-305.
<https://doi.org/10.2307/353749>
- Dvorakova, A. (2018). Contextual Identity Experiencing Facilitates Resilience in Native American Academics. *The Social Science Journal*, 55(3), 346-358. <https://doi.org/10.1016/j.soscij.2017.12.001>
- Finch, B. K., & Vega, W. A. (2003).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Among Latinos in California. *Journal of Immigrant Health*, 5(3), 109-117.
<https://doi.org/10.1023/A:1023987717921>
- Friedman, H., & Martian, L. R. (2011). The Longevity Project. In S. *Choi (Ed), Seoul: Samparkers*.
- Fu, X., Tora, J., & Kendall, H. (2001). Marital Happiness and Inter-Racial Marriage: A Study in a Multi-Ethnic Community in Hawaii.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2(1), 47-60.
<https://doi.org/10.3138/jcfs.32.1.47>
- Gardner, D. G., & Pierce, J. L. (1998).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thin

- the Organizational Context an Empirical Examination. *Organization Management*, **23**(1), 48-70. <https://doi.org/10.1177/1059601198231004>
- Glenn, N. D., & Weaver, C. N. (1981). The Contribution of Marital Happiness to Glob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2), 161-168. <https://doi.org/10.2307/351426>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1), 3-25. <https://doi.org/10.1037/0033-295X.109.1.3>
- Gross, D., & Rocissano, L. (1988). Maternal Confidence in Toddler Hood: its Measurement For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Nurse Practitioner*, **13**(3), 19-29. PMID: 3374866
- Guinn, B., & Vincent, V. (2002). Determinants of Coping Responses Among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72**(4), 152-156. <https://doi.org/10.1111/j.1746-1561.2002.tb06536.x>
- Guthrie, G. M. (1975). A Behavioral Analysis of Culture Learning. Cross-cultural Perspective Son Learning. *New York: Wiley*.
- Harris, M. A., & Orth, U. (2020). The Link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Relationships: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9**(6), 1459-1477. <https://doi.org/10.1037/pspp0000265>
- Houseknecht, S. K., & Macke, A. S. (1981).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651-661. <https://doi.org/10.2307/351766>
- Hovey J. D., & Magana, C. G. (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 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8**(3), 223-237. <https://doi.org/10.1023/A:1015215723786>
- Izzo, C., Weiss, L. Shanahan, T., & Rodriguez-Brown, F. (2000). Parental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Mexic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Community*, **20**(2000), 182.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802_8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3), 341-363. <https://doi.org/10.1016/j.cpr.2004.12.004>
- Kim, D. H. (2008). *A Study of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of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E., Hogge, I., & Salvisberg, C. (2014). Effects of Self-esteem and Ethnic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exican Immigra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6*(2), 144-163. <https://doi.org/10.1177/0739986314527733>
- Kim, J. K., & Yoo, K. H. (2019). Effects of Self-esteem on Nursing Students' Resilienc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6*(3), 261-269. <https://doi.org/10.5953/JMJH.2019.26.3.261>
- Koniak-Griffin, D., Logsdon, M. C., Hines-Martin, V., & Turner, C. C. (2006). Contemporary Mothering in A Diverse Society.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35*(5), 671-678. <https://doi.org/10.1111/j.1552-6909.2006.00089.x>
- Korja, R., Piha, J., Otava, R., Lavanchy-scaiola, C., Ahlqvist-Bjrkroth, S., Aromaa, M., & Rih, H. (2016).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Mother-father-child Triadic Interaction.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7*(4), 305-312. <https://doi.org/10.1111/sjop.12294>
- Kwan, R. W., H., Kwok, S. Y., C., L., & Ling, C. C., Y. (2015). The Moderating Roles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Co-parenting Alliance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Chinese Fathers and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2), 3506-3515. <https://doi.org/10.1007/s10826-015-0152-4>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Coping and Appraisal*. New York: Springer.

- Leary, M. R. (2015). Emotion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Rejection.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17*(4), 435-441.
<https://doi.org/10.31887/DCNS.2015.17.4/mleary>
- Leary, M., & Baumeister, R.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Zanna, M.(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CA: Academic Press, 32*(2000), 1-62.
[https://doi.org/10.1016/S0065-2601\(00\)80003-9](https://doi.org/10.1016/S0065-2601(00)80003-9)
- Lönnqvist, J. E., Leikas, S., Mähönen, T. A., & Jasinskaja-Lahti, I. (2015). The Mixed Blessings of Migratio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ver the Course of Migr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4), 496-514. <https://doi.org/10.1002/ejsp.2105>
- Luster, D.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st and Perceptions of Moscovitz. M. (1966 October) 100 Best Companies for Working Mothers. *Working Mother, 19*(9), 1-30.
- Maddux, J. E. (1991). Self-efficacy. In C. R. Snyder & D. R. Forsyth (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The health perspective*, 57-78. Pergamon Press.
- McClurg, L. (2007). *Acculturative Stress and Problematic Behavior in Hispanic-American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 of Problem 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1981), 73-78. <https://doi.org/10.1037/0012-1649.17.1.73>
- Nesdale, D., & Mak, A. S. (2000). Immigrant Acculturation Attitudes and Host Country Identification.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0*(6), 483-495.
[https://doi.org/10.1002/1099-1298\(200011/12\)10:6](https://doi.org/10.1002/1099-1298(200011/12)10:6)
- Nesdale, D., & Mak, A. S. (2003). Ethnic Identification, Self-esteem and Immigrant Psychological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1), 23-40. [https://doi.org/10.1016/S0147-1767\(02\)00062-7](https://doi.org/10.1016/S0147-1767(02)00062-7)
- Nesdale, D., Rooney, R., & Smith, L. (1997). Migrant Ethnic Ident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8*(5), 569-588. <https://doi.org/10.1177/0022022197285004>

- Panchanadeswaran, S., & Dawson, B. A. (2011). How Discrimination and Stress Affects Self-esteem Among Dominican Immigrant Women: An Exploratory Study.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26*(1), 60-77. <https://doi.org/10.1080/10911350903341069>
- Park, S. Y., & Bernstein, K. S. (2008). Depression and Korean American Immigra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2*(1), 12-19. <https://doi.org/10.1016/j.apnu.2007.06.011>
- Pearlin, L.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3), 241-256. <https://doi.org/10.2307/2136956>
- Pyszczynski, T., Greenberg, J., Sheldon, S., Arndt, J., & Schimel, J. (2004).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0*(3), 435-468. <https://doi.org/10.1037/0033-2909.130.3.435>
- Rehman, U., Janssen, E., Newhouse, S., Heiman, J., Holtzworth-Munroe, A., Fallis, E., & Rafaeli, E. (2011). Marital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Behaviors During Sexual and Nonsexual Conflict Discussions in Newlywed Couples: a Pilot Stud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37*(2), 94-103. <https://doi.org/10.1080/0092623X.2011.547352>
- Roach, A. J., Frazier, L. O., & Bowden, S. T.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3), 537-546. <https://doi.org/10.2307/35175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G. C. (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https://doi.org/10.2307/1170010>
- Smalley, W. A. (1963). Culture Shock, Language Shock, and the Shock of Self-discovery. *Practical Anthropology, 10*(2), 49-56.
- Steca, P., Bassi, M., Caprara, G. V., & Fave, A. D. (2011). Parents Self-efficacy Beliefs and Their Children's Adaptat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40*(3), 320-331.

DOI:10.1007/s10964-010-9514-9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https://doi.org/10.2307/1131143>
- Toro, R. I., & Nieri, T. (2018). Parent-child Acculturation and Cultural Values Difference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Self-esteem and A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66*(2018), 1-11. <https://doi.org/10.1016/j.ijintrel.2018.05.004>
- Trzesniewski, K. H., Robins, R. W., Roberts, B. W., & Caspi, A. (2004). Personality and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Recent Advances in Psychology and Aging*, *1*(15), 163-185.
[https://doi.org/10.1016/S1566-3124\(03\)15006-7](https://doi.org/10.1016/S1566-3124(03)15006-7)
- Vangelsti, A. L., & Daly, J. A. (1997). Gender Differences in Standards for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4*(3), 203-219.
<https://doi.org/10.1111/j.1475-6811.1997.tb00140.x>
- Virupaksha H. G., Kumar, A., & Nirmala, B. P. (2014). Migration and Mental Health: An Interface. *Journal of natural science, Biology and medicine*, *5*(2), 233-239. DOI:10.4103/0976-9668.136141
- Ward, C., & Kennedy, A. (1994). Acculturation Strategie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ocultural Competence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8*(3), 329-343. [https://doi.org/10.1016/0147-1767\(94\)90036-1](https://doi.org/10.1016/0147-1767(94)90036-1)
- Ward, C., Bochner, S., &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2nd ed.)*.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992258>
-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541.
<https://doi.org/10.4324/9780203992258>
- Ying, Y. M., & Liese, L. H. (1991). Emotional Well-being of Taiwan Students in the U. S.: An Examination of Pre-to Post-arrival Differenti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3), 345-366.

[https://doi.org/10.1016/0147-1767\(91\)90007-4](https://doi.org/10.1016/0147-1767(91)90007-4)


Ying, Y. W., & Han, M. (2008). Parental Acculturation, Parental Involvement,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and Adolescent Outcomes in Immigrant Filipino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Immigrant & Refugee Studies* 6(1), 112-131. <https://doi.org/10.1080/15362940802119351>

<부록>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데이터

1-2차년도 외국인학부모용 조사표

2022.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 데이터(MAPS 2기)」 학부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조사 실시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이며, 최초결과 공표(기초분석보고서)는 2021년 12월 31일, 최초 데이터 공개는 2022년 12월 30일이다.

<부록>

설문지

※ 다음은 한국에서 귀하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문화적응 스트레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게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태어난 곳과 사람들이 그럽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외국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자아존중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부모효능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아이가 무엇에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모보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모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결혼만족도

1. 배우자(사실혼 포함)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만족도)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귀 닥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가정형편)

아주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사는 편이다	아주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Abstrct

The Effects of Work-Family Balance and Resilience on Happiness
in Dual-earner Couples with Early Childhood :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Jeon, Young-hwa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Major Advisor : Jung, Min-Ja, Pro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o examine the detailed indirect effects that change when the mediating variables of self-esteem and parental efficacy are introduced into this relationship.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 how does acculturation stress affect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Second, how does acculturation stress affect self-esteem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Third, how does self-esteem affect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Fourth, how does acculturation stress affect parental efficacy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Fifth, how does parental efficacy affect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Sixth, what i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Seventh, what i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To test these research questions, we selected married immigrant women,

who are mothers of multicultural youth who responded to the 2020 survey of the Korean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s Multicultural Youth Panel 2. From a population of 2,249 respondents, we selected 1,781 mothers who were still married and those who had children. The research method was an interview, which was conducted by professional researchers.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6 and AMOS 29 programs. First,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acculturation stress, self-esteem, parental efficacy,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obtained to identify the central tendency of the main variables, and skewness and kurtosis were checked to confirm the normal distribution. Second, the VIF values were determined to check for multicollinearity, and the Cronbach's α values were derived using the SPSS program to check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tool. Third, to check the construct validity, the direct effect was analyz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analysis using AMOS program. Fourth,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parental efficacy, phantom variables were set up using the AMOS program to test the indirect effect.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bootstrapping was performed for 5,000 itera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higher acculturation stress was associated with lower marital satisfaction,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a=.248$, $p<.001$). Second, higher acculturation stress was associated with lower self-esteem,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a=.297$, $p<.001$). Third, higher self-esteem was associated with higher marital satisfaction,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a=.127$, $p<.001$). Fourth, higher acculturation stress was associated with lower self-esteem, and higher self-esteem was associated with higher marital satisfaction ($p<.001$). In addition, the total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self-esteem ($\beta=-.167$, $p<.001$)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ifth, the higher the acculturation stress, the lower the parental efficacy,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a=.270$, $p<.001$). Sixth, higher parental efficacy was associated with higher marital

satisfaction,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a=.344$, $p<.001$). Seventh, higher acculturation stress was associated with lower parental efficacy, and higher parental efficacy was associated with higher marital satisfaction ($p<.001$). In addition, the total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parental efficacy ($\beta=-.167$, $p<.001$)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reveal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parental efficacy on acculturation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immigrant women, confirming that reducing acculturation stress can increase self-esteem and parental efficacy and increase marital satisfaction. Second, this research examined th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reducing acculturative stress and increasing self-esteem and parental efficacy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intervent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can enhance the self-esteem and parental 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as a way to reduce acculturation stress.

Key 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acculturation stress, self-esteem, parental efficacy, marital satisfaction